

36.

인간정보자료실
Ic1.2.3
64.5

제4차 세계여성 대회와 한국여성 발전 전략 세미나

- 일 시 : 94. 10. 7 (금) 13 : 00 ~ 17 : 00
- 장 소 : 한국여성개발원 국제회의장

NGO 한국위원회

후원: *한국여성개발원*

인간정보자료실
Ic1.2.3

제4차 세계여성 대회와 한국여성 발전 전략 세미나

- 일 시 : 1994. 10. 7 (금) 13 : 00 ~ 17 : 00
- 장 소 : 한국여성개발원 국제회의장
- 주 최 : NGO 한국위원회 (54개 단체 연합)
- 주 관 : 대한여성간호협회
전문직여성클럽 한국연맹
한국 여성단체 연합
한국 여성의 전화
한국 여성유권자 연맹
한국 여성정치연구소
한국 여신학자협의회
한국 YWCA 연합회
- 후 원 : 한국여성개발원

NGO 한국위원회

프로그램

○ 13:00 등 록

○ 13:30 개 회

○ 14:40 제 1 부

사회: 박영혜 (전문직여성클럽 한국연맹)

I. 제 4 차 UN 세계 여성대회의 의의와 NGO의 역할 김현자 (한국 YWCA 연합회) 정국희의사

II. 한국 여성의 지위와 발전 전략 박보희 (한국사회정보연구원)

○ 14:20 휴 식

장동 ASGAP에 관한

○ 14:30~16:00 제 2 부 실천계획의 분야별 토의 - 일방토론 → 이해관계자 토론 → 이해관계자 토론

1) 여성과 발전

진행자: 최영희 (대한간호협회) 이민경

- ① 환경 공해: 박영숙 (한국 환경사회정책연구소)
- ② 직업 개발: 김준희 (한국 YWCA 연합회)
- ③ 여성 노동: 정강자 (한국 여성 민우회)

한국사상
중요 " " " " " "

- ④ 농촌 여성: 고은실 (전국 여성 농민회) WTO
- ⑤ 여성 건강: 변영순 (대한간호협회)

2) 여성과 정치 세력화

진행자: 신낙균 (한국 여성 유권자 연맹)

- ① 정치 참여: 손봉숙 (한국 여성정치연구소)
- ② 정치 발전 전략: 김정숙 (한국 여성 정치문화 연구소)

3) 여성과 인권·문화

진행자: 유춘자 (한국 여신학자 협의회)

- ① 성폭력: 신혜수 (한국 여성의 전화)
- ② 정신대 문제: 권희순 (정신대 문제 대책 협의회)
- ③ 종교와 성차별: 한지현 (원불교 여성회)

○ 16:00~17:00 제 3 부 전체토론

사회: 이미경 (한국여성단체연합)

○ 17:00 폐 회

동행한다.

제4차 세계여성대회의 의의와 NGO의 역할

김현자

대한YWCA연합회

제4차 세계여성대회가 1995년 9월 4일부터 15일까지 중국 북경에서 열린다. 이 여성대회는 10년만에 열리는 유엔의 최대 여성관련행사로 세계여성의 관심을 집중시키고있다. 이미 2년전부터 이를 위한 준비회의가 국가별, 지역별로 활발하게 진행되어왔으며 우리나라에서는 정부 2장관실이 주동이 되어 참가준비를 진행하고있다. 이 대회에는 184국의 국가대표 1만여명이 모일 것이 예상된다.

북경에서는 정부대표들이 모이는 공식적인 대회와는 별도로 수만명의 참가가 예상되는 NGO(비정부민간단체)포럼이 8월 30일부터 9월 8일까지 북경의 다른 장소에서 열릴 예정이다. 이는 20세기에 마지막으로 열리는 지구상의 대 여성축제라고도 할 수 있으며 내년이 유엔창설 50 주년이라는 점에서도 더욱 뜻깊다. 여기서는 이러한 일련의 여성대회의 배경과 그 목적, 민간단체들의 역할 등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한다.

1. 대회의 배경 - 유엔여성지위위원회

제4차 세계여성대회의 배경을 알기 위해서는 유엔여성지위위원회의 역할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1945년 창설된 유엔은 1946년에 경제사회이사회 산하기구로서 여성지위위원회를 발족시켰다. 유엔여성지위위원회는 여성의 평등을 증진하며 정책결정기관으로 하여금 여성지위를 향상시킬 수 있는 여러 방법을 도모하도록 하는 기능위원회이다. 유엔여성지위위원회는 유엔내에서 여성문제 해결을 위한 핵심적임무를 수행한다. 여성문제에 관한 여러 유엔결의안 작성이나 결정을 하는 데 있어 중추적 역할을 하며 최근의 것으로는 "유엔 여성차별철폐협약"의 제정이 가장 중요한 업적으로 꼽힌다. 여성세계대회의 주관은 물론 여성에 관한 회원국들의 정기보고서를 통하여 정보를 수집하는 업무도 관장한다. 개도국 여성을 돕기위해서 "유엔여성발전기금"과 "국제여성인력훈련원"도 설치 운영하고있다.

유엔여성지위위원회 위원국은 경제사회이사회에서 선임되는 데 지역적으로 그 수를 안배한다. 위원국수는 18개국에서 32개국으로, 또 다시 43개국으로 확대되었다. 우리나라는 금년부터 4년임기의 여성지위위원회 위원국이 되었다.

1995년 9월 4일부터 15일까지

그동안 유엔여성지위위원회의 활동은 우리나라의 여성지위향상에 크게 기여하였다. 우리나라가 유엔회원국이 되기전부터 유엔의 결의사항을 존중하려고 노력했고 또 그렇게 하도록 여성민간단체에서 압력을 가하였다.

2. 유엔세계여성대회

116.

1975년은 세계의 여성발전사에 길이 기억될 중요한 해이다. 유엔여성지위위원회의 제안으로 유엔총회가 75년을 "세계여성의 해"로 제정했고 이를 기념하는 제1차 세계여성대회가 평등, 발전, 평화라는 3대주제를 갖고 멕시코에서 개최되었기 때문이다. 이 대회에서는 여성행동강령을 채택함과 동시에 1976년부터 1985년까지의 10년을 "유엔여성10년"으로 제정할 것을 결의했다. 5년후인 1980년에는 행동강령의 이행을 중간점검하는 제2차세계여성대회가 코펜하겐에서 개최되었고 1985년에 지금까지의 활동을 종합평가하는 제3차세계대회가 나이로비에서 열렸다.

나이로비대회는 372개항에 달하는 "2000년을 향한 나이로비 여성발전전략"을 채택하여 2000년까지의 여성정책의 방향을 제시했다. 이 발전전략은 법적, 제도적인 여성차별철폐를 비롯해서 경제, 정치, 사회, 문화, 교육, 보건, 대중매체 등 모든 분야에서 여성의 참여와 기여를 강조하였다.

3. 제4차세계여성대회

117.

이번 북경에서 열리는 제4차 세계여성대회는 나이로비에서 채택된 여성발전전략의 이행상황을 평가하고 새로운 행동강령을 채택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정부회의와 NGO포럼을 포함 약 2.3만명의 인원이 참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북경대회는 지난 10년뿐만 아니라 75년 이래 여성에게 일어난 변화를 총평가할 것이다. 세계적으로 일부국가들을 제외하고는 여성의 지위는 크게 향상되었고 특히 법적으로는 거의 남녀평등을 보장받고있다. 그러나 실제에 있어서 여성은 아직도 열악한 상태에 있다. 많은 나라에서 여성은 빈곤의 부담을 더 많이 안고 있고, 지역분쟁과 내전의 희생자이며 성폭력과 인권침해의 주대상자도 되어있다.

이번 대회에 제안될 행동강령을 보면 이제 여성문제는 여성의 지위향상이나 남녀평등의 차원에서 벗어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분야에서 주류에 합류하여 적극 참여할 것을 강조하고있다. 소위 여성문제만을 볼 것이 아니라 사회의 여러 분야의 문제를 여성의 관점과 시각에서 파악하고 대안을 제시할 것이 요청된다. 특히 정책결정과정과 권력의 행사에 여성의 몫을 차지할 것을 주장하고있다. 그러기위해

서는 힘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Empowment라는 말은 요즘 세계의 여성모임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용어가 되었다. 특히 정치적 힘, 경제적 힘을 길르는 것이 강조되고 있다.

이번 대회는 냉전종식후에 처음 갖는 여성대회라는 데에 또한 의의가 있다. 제3차세계여성대회까지만 해도 대회장은 동서양진영의 이념의 각축장이 될 정도로 정치색이 매우 농후했던 것이 사실이다. 냉전후의 세계는 이데올로기의 충돌이 사라진 대신 민족, 종교, 문화적갈등이 다시금 세계를 갈라 놓고있다. 빈부의 양극화현상은 극대화되고 있으며 그 와중에서 가장 큰 피해를 입는 것은 힘없는 여성들이다. 이번 대회는 빈곤여성의 문제에 큰 관심을 돌릴 것으로 보인다.

4. NGO의 역할

유엔은 말할 것도 없이 정부간의 협상기구이다. 그러나 유엔은 초기부터 정부대표뿐만 아니라 민간기구들도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장치를 마련해놓았다. 즉, 유엔의 핵심기구인 경제사회이사회(ECOSOC)는 등록된 국제민간단체들(Non-Governmental Organization=NGO)을 자문기관으로 활용하고있다. NGO는 ECOSOC의 각종회의에 방청으로 참가할 수 있고 산하기관과 위원회에 상주방청대표를 파견할 수 있다. 현재 자문기관으로 활동하는 여성관련 국제민간단체도 80여개가 된다. 이들은 결의권은 없으나 그들의 대표를 통해 유엔관련자료와 정보를 전달받으며 토의되는 의제에 대해서도 건의서를 제출할 수 있다.

유엔이 75년을 "세계여성의 해"로 제정하고 세계여성대회를 개최하게 된 것도 그 뒤에는 BPW, ICW 등 NGO들의 활약이 있었다. 이들이 유엔여성지위위원회에 참석해서 이를 제안하고 적극 로비를 하므로써 이루어진 것이다. 이것만 보아도 UN에서 NGO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가를 알수 있다. 정부대표들로서는 감히 할 수 없는 안들이 NGO에 의해서 창출되는 것이다. NGO는 민간단체로서 정부에 여러가지 시민의 의견을 전달하고 또 압력단체의 구실을 한다. 그러나 정부나 유엔이 NGO의 자유분방한 활동을 항상 환영하는 것은 물론 아니다.

여성문제뿐만 아니라 환경, 교육, 인구, 개발 등의 의제로 세계대회가 열릴때도 NGO가 같은 도시, 같은 시기에 동일한 의제를 가지고 별도의 포럼을 조직하여 운영하는 것이 관례화되어 있다. 그들의 참가수는 흔히 공식회의 정부대표수를 능가한다. 정부대표들이 모이는 공식회의가 자국의 이해관계위주로 발언하고 제안하는 경향이 있는 데 반해 NGO회의는 그러한 제약에 구속되지않고 순수하게 전인류와 세계

적임장에서 문제를 다루게 되므로 의제의 핵심에 보다 잘 접근한다고 볼 수 있다. 회의의 진행방식도 양자간에 큰 차이가 있다. 공식회의가 딱딱하게 결의문의 조항을 따지고 지리하게 연설이 계속되는 데 비해 NGO포럼은 그 형식이나 내용에 있어 매우 다양하고 융통성이 있고 창의적이다. 동행자

내년의 북경 NGO포럼의 주제는 "여성의 눈으로 세계를 보자"라는 것이다. 지구
의 구석구석에서 모이는 각양각색의 여성들은 300개 내지 500개의 각종 세미나, 워크샵, 강연회 등을 동시다발적으로 개최하면서 여성의 눈으로 세계의 문제를 바라볼 것이다. 그러므로써 공식회의에서 채택될 행동강령에 영향을 주고 또 나름대로 미래의 세계를 위한 전략을 수립할 것이다. 한국의 경우 2001년 2월 25일 2001년 2월 25일

5. 한국NGO의 참여

한국은 지난 20년동안 국력의 신장과 더불어 여성의 지위도 현저한 향상과 발전을 보였다. 정부차원에서 여성문제를 전담하는 부서와 연구기관이 생겼고 민간여성단체들도 활발한 움직임을 보였다. 특히 최근에는 정치참여, 성폭력, 인권문제 등 특정분야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여성구룹들이 생겨나면서 더욱 활기를 띠고 있다. 법률과 제도면에서도 여성을 차별하는 조항들은 대부분 제거되었다.

법적, 제도적으로는 어느정도 장애요인들이 제거되었다고 하나 남녀평등의 실현은 아직도 요원하다. 단적인 예로 국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진출과 정책결정과정에 여성이 거의 소외된 것을 들 수 있다. 이제 우리의 과제는 사회의 주류로 들어가는 일이며 그러기위해서 힘(power)을 길르는 일이다.

동시에 우리는 세계의 고통받고있는 많은 여성들을 생각해야한다. 내전으로 인해 집과 나라를 잃고 방황하는 그 많은 여성과 아동들, 굶주림과 질병에 죽어가는 아프리카의 난민여성, 조직적으로 성폭행당하는 분쟁지역의 희생자들을 잊어서는 안된다. 그러한 고난과 시련을 딛고 이리선 우리로서 그들에게 따뜻한 이해와 지원을 보내주어야 한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언어장애 등 이유로 국제회의에서 수동적, 방관적으로 참여해 온 것이 사실이다. 이제는 우리도 국제사회에서 국력에 걸맞게 역할을 해야한다. 경제발전과 민주화를 이루는 과정에서 우리가 겪은 경험을 다른 개도국들과 나누므로써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이번 북경대회는 21세기를 위한 여성의 비전과 전략을 제시하는 역사적인 대회가 될 것으로 믿는다.

〈85년 나이로비에서의 제3차세계여성대회에서 채택한 "2000년을 향한 여성발전전략"의 이행사항을 점검 평가하고 앞으로의 여성행동계획을 모색하는 중요한 회의이다.〉

남한여성개발원
출판부

Advancement of Women's Status in Korea

East Asia Women's Forum
20-23 October 1994, Kanagawa Women's Center, Japan

Pak Po-Hi, Director
Korea Institute for
Social Information & Research

The two United Nations Decades for Women, with their objectives of integrating women's concerns in all development efforts at the national, regional and international levels, have had far-reaching impact on women's policies of the Republic of Korea. The plans and programmes of action emerging from the Mexico, Copenhagen and Nairobi conferences on women, more than anything else, provided the strategic framework for the development and implementation of the country's women's policies. Much has been achieved as a result toward advancing the status of Korean women. Much more remains to be done, however.

In the following, these and other observations relating to the situation of Korean women will be presented with an eye to the forthcoming Beijing World Conference on Women.

I. Progress and Challenges in the Basic Services Fields

a. Demography and Health

In 1992, total Korean population was 43.7 million and 21.7 million of them were female. The gender ratio was 100:98.7 in favour of males. The female ratio was lower among children, especially the very young, among whom the ratio ranged between 100:87.21 and 100:89.05 during 1990-1992. This imbalance in gender ratio is due to parental preference for male children and governmental promotion of one-child or, at most, two-children family.

In 1990, the average life expectancy of Korean females was 75.4 years, eight years longer than for men. It also represented a 2.3 year gain over the 1985 female life expectancy.

In the same year, the fertility rate was 1.6 as compared to 1985's 1.7. This slight decline in fertility was due to the trend of later marriage and earlier termination of childbirth. More than 56% of the women giving birth belonged to the ages between 25 and 29 in 1990.

The maternal mortality rate declined from 4.2 in 1980 to 3.0 in 1992, owing largely to improved state of women's health in general and better care services for pregnant women.¹ For instance, the proportion of women suffering from anemia went down from 2.74 per thousand in 1985 to 0.06 per thousand in 1990. For another instance, protected or assisted child deliveries in one context or another has become practically universal.

The infant mortality rate was 12.8 in 1990, registering a 0.5 decline from the 1985 figure, although separate mortality data for female infants were unavailable. Unavailable also were gender differential statistics on children's nutrition status. It is generally accepted however that, owing to Korea's recent economic progress, very few Korean children, whether male or female, suffer from malnutrition caused by insufficient intake of food. Major causes of death of both male and female children under the age of one were congenital problems and accidents. They are only infrequently known to die of diseases, thanks to medical advances.

These and other improvements in the health of Korean women and female children owe to a significant degree to the revised Mother-Child Health Act of May 1986 under which the Government provides, among others, basic diagnostic services, basic immunization, metabolism tests, pre-natal and post-natal cares, cost-free nutrition supplements to those suffering from anemia, etc.

b. Education

Since the legislation of the Education Act in 1949, primary school education has been compulsory. Subsequent to 1970, therefore, the primary enrollment

¹) The rate of institutional (hospital or clinic) child deliveries that had stood at 53.7% in 1980 rose to 85.8%

in 1985 and to 91.0% in 1991. Assisted deliveries, which may be regarded as safe deliveries though not

necessarily in institutional settings increased from 59.5% in 1980, 88.2% in 1986 to 98.0% by 1991.

ratio has consistently exceeded 100%.² As of 1992, thanks to the extension of compulsory education to the middle level, more than 99.9% of the primary school graduates proceeded to middle schools and there was no gender gap. The discrepancy begins to appear from the high school level on, where the female enrollment ratio was 87.9% and the male enrollment ratio 89.2% in 1992. Of female high school graduates, 19.4% went on to colleges or universities in 1992 while 29.6% of male high school graduates did so in the same year.

Female participation in the technical and scientific field of education lags considerably behind males. In 1993, there were 25 technical high schools in the metropolitan area of Seoul and only nine of them admitted female students numbering 2,162 or 29.1% of the total of 7,423 students newly admitted to all the technical high schools that year. As in 1992, there were two girls-only technical high schools in the country.

To address the situation, the government encourages the establishment of new technical high schools for girls and the admission of higher percentage of girls by all technical high schools. At the same time, the government recently revised the official middle school curricula to integrate the home economics and technical courses and required both the male and female students to take it with a view to encouraging female enrollment in science and technology.

The government also developed and distributed career guidance programmes for high school students and the schools, public and private alike, have been encouraging female students to choose science, civil engineering, carpentry, mechanics, etc. as their career fields. Of particular interest in this regard is opening the Science High School, established to help advance the country's science, to female students. Perhaps as a result, their field-specific enrollment pattern in universities and colleges changed from 23.5% in education, 19.9% in natural science, 19.0% in liberal arts and 14.6% in social science in 1985 to 26.4% in natural science, 19.3% in social science, 17.5% in liberal arts and 14.4% in education in 1992, showing a marked shift of interest toward the science fields, particularly natural science.

Special Education

Since 1984, the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KWDI) has produced various publications and audiovisual materials for educating women leaders and for raising women's consciousness. In 1989, the Institute carried out

²) UNESCO, however, estimates 6.5% of Korean women aged 15 years or more and 0.9% of Korean men of the same age bracket to be illiterate.

special training for aspiring women political leaders to strengthen their leadership qualities and to expand women's participation in the legislature, government and political parties.

Korean National Council of Women, Korea Women's Organizations United and other NGOs engaged in various educational and training activities for leaders of women's organizations and other women leaders to deepen their awareness of social issues and to stimulate effective action in their respective areas of interest and competence.

More universities than before opened women's study subjects as electives so that in addition to those majoring in women's studies, the entire student body would have an opportunity to study in depth various women's issues.

Vocational Training

Korean government provides vocational training for women in 31 Public Vocational Training Centers. Every year 2,000 women receive vocational training in textiles, handicrafts, office management, machinery and machine installation, precision measurement, electronics, dress design, jewelry making and office automation.

In the private business sector, 10,000 women a year receive in-service training in 41 occupational fields at 102 training facilities. Of the total, 5,000 receive training at 55 accredited training centers authorized to award certificates.

Among NGOs, Korean Federation of YWCA engaged in extensive vocational training activities at its programme centers for working women. Construction, machine design, jewelry making, accessories and fashion design, and sales have been among the training subjects. Korean Federation of Housewives Clubs, the Embroidery Association and the Study Group to Improve Food and Nutrition provided training in hand embroidery, machine embroidery, handicraft, cooking and nutrition management.

II. Progress and Challenges in the Legislative Field

The legislative field is one of the few areas where progress can be described as having been momentous in Korea.

The Family Law, as revised in 1990, radically departs from the past legal perspective regarding women's place and role in the family and in society as it accords women and female children inheritance, property, succession, guardian-

ship and matrimonial rights that are almost entirely equal to those accorded to men and male children. Discriminatory elements that remain are with reference to marriable age, legal waiting periods prior to remarriage and taxation on property inherited by wife from her spouse.

The Equal Employment Opportunity Act, as revised in 1989 to better incorporate the principle of equal pay for equal work represents another landmark toward full gender equality. Other laws and regulations revised to remove gender-bias from them or were newly enacted to introduce institutional adjustments for women's advancement since the 1980s include the following:

The Labour Standards Act (revised in 1989);
The Domestic Litigation Act (19);
The Inheritance and Gift Tax Act (19);
The Property Tax Assessment Regulations (19);
The Mother-Child Welfare Act (went into force in 1989);
The Infant and Child Care Act (1991); The Mother-Child Health Act (revised in 1986);
The Civil Service Examination Regulations and the Local Civil Servant Employment Regulations (revised in 1989 and 1991 respectively);
The Law for Punishing Sexual Offenders and Protecting Victims of Sexual Assault (1994).

Ratification of International Accords on Women

The Republic of Korea ratified the following international instruments related to the protection and/or development of women:

- . The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Signed May 1983, ratified December 1984)³
- . The Convention on the Political Rights of Women (effective since 1959).
- . The Convention for the Suppression of the Traffic in Persons and of the Exploitation of the Prostitution of Others (effective since 1962).

³ At first with reservations on Articles 9 and 16-1 (c), (d), (f) and (g). On 15 March 1991, however, the reservations on Article 16-1 (c), (d) and (f) were withdrawn in a follow-up on the revised Family Law. The reservations on Articles 9 and 16 (g), pertaining to the right to choose one's surname, still remain because

they are incongruous with the country's current law

. The optional protocol to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and other major international accords relating to human rights.

III. Progress and Challenges in Participation in National Decision-Making

Progress in Korean women's participation in national decision-making has been highly mixed in that while an increasing number of women have advanced into the country's public service field or are on various government committees, very little headway has been made in raising the number of women in position to take direct part in national policy decisions, such as members of the National Assembly and high-ranking government officials.

a. Political Participation

Women in the National Assembly

The number of women in the National Assembly has steadily declined from 11 (5%) for the 9th Assembly (1973-1978), nine (3.9%) for the 10th (1978-1981?), eight for the 11th (1981-1985?) and the 12th (1985-1988), six for the 13th (1988-1992) to five (1.7%) for the current 14th (1992-1996), indicating a 3.6% decline during the two Decades for Women.

Women in Local Assemblies

At the first local assembly election held in 1991, 40 women were elected to the Small District Assemblies, and eight women to the Large District Assemblies, which accounted for 0.9% of all the local assembly representatives. The 48 women together represented 28.4% of the women who stood for election for the local assemblies.

b. Participation in Government

Women in the Executive Branch

Progress in the Executive Branch has been considerably more optimistic. Whereas one or no woman representation in the cabinet has been a fairly long-standing pattern, the current civilian government that took office in February 1993 appointed three women ministers for its first cabinet in a move to fulfill one of the Presidential campaign pledges. Among the three is the Minister for Political Affairs (II) who has the charge of the country's women's affairs. The Minister is assisted by an Assistant Minister for Political Affairs (II) who is currently also a woman.

Female representation in the civil service as a whole increased from 21.6% (144,548 women in absolute terms) in 1986 to 25.6% (219,845 women) in 1992, showing a 4.0% (75,297 women) rise. Of the 1992 female total, however, only 1.9% or 492 were at the Grade 5 (Assistant Director) or higher levels.

Perhaps of interest also in the above connection is the emergence of a corps of female foreign service, public security and military personnel, which numbered 32 (2.7%), 963 (1.1%) and 2,000 respectively in 1992/1993.

Female representation in the public education field is considerable in the country, although only a miniscule proportion of them are in decision-making positions such as heads of schools, superintendents and administrators. (Figures unavailable).⁴

Women's sections in the Ministries include the Women's Welfare Division of the Family Welfare Bureau in the Ministry of Health and Social Affairs, and the Women and Youth Bureau in the Ministry of Labour, as cited earlier.

Women in Government Committees/Commissions

There are numerous committees and commissions from which the government seeks advice at the presidential, prime ministerial or ministerial level. In order to increase the number of women in those bodies and thus expand their participation in national decision-making, the Ministry of Political Affairs (II) has developed a concrete course of action which included the compilation and distribution to various government ministries of a roster of 4,700 women qualified to serve on their committees. In part as a result of this action, female representation in the various committees/commissions increased from 5.5% in 1988 to 9.0% in 1990. The Government plans to raise the representation ratio to 15% by the year 2000.

Women in the Judiciary

Of the total of 9,089 judiciary sector employees in 1992, 1,955 or 21.5% were women. The proportion of women in this sector has been rising

In 1985, 280 or 2.8% of the total 10,022 persons in charge of primary, middle and high schools of both the public and private sectors were women. In 1992, the number increased to 406 or 4.1% of the 10,030 persons in such positions. In the same year, there were 267 heads of national and private universities and colleges and 22 or 8.2% of them were women.

steadily and, at present, 42 or 3.7% of the 1,133 judges in the country are women.

In the related field of legal practice, there were altogether 2,600 lawyers in the country in 1992 and 29 or 1.1% of them were women. In the recent few years, however, the number of women passing the national examination for legal practice has been increasing rapidly so that the female representation in the country's legal profession is expected to rise significantly in the near future.

National Machinery for the Advancement of Women

Governmental Agencies and Bodies

In 1988, the Office of the Second Minister of State for Political Affairs took charge of women's policies. The Women's Welfare Division of the Family Welfare Bureau of the Ministry of Health and Social Affairs and the Bureau of Women and Youth of the Ministry of Labor report to the Office on women's affairs falling under their respective purviews. At the local level, the Bureau of Family Welfare of the 14 metropolitan and provincial administrations implement women's policies.

National Committee on Women's Policies

The National Committee on Women's Policies was established in 1983 by an Executive Decree as an advisory body under the Office of the Prime Minister. When government agencies formulate policies for the advancement of women, the policies are subject to review by the Commission. It has the highest advisory authority on women's policies and reviews all major legislations, strategies, policies and programmes stemming from government ministries and agencies and advises the Prime Minister. It also proposes policies and programmes of its own for consideration by the Prime Minister. Indirectly, it has a monitoring function as well with reference to the activities of various government agencies related to women.

The Committee is chaired by the Prime Minister, with the Ministers of the Economic Planning Board and Health and Social Affairs and the Second Minister of State for Political Affairs serving as co-vice chairpersons. Other permanent members are the Ministers of Home Affairs, Justice, Education, Culture and Sports and Labor and the President of the KWDI. The remainder of the Commission Members are from outside the government. At present, ___? persons representing diverse interests in the non-governmental sector and with expertise on women's affairs have been appointed by the Prime Minister to the Committee. The various organizations for the advancement of women and the government ministries are closely and formally linked through the Committee.

Interministerial Cooperation and Coordination

The Second Minister of State for Political Affairs coordinates conflicting policies of the various government ministries. The latter is required to provide the maximum possible cooperation to the former, and when they enact rules and regulations with implications for women, they are required to consult with the former.

Women's Research Institute

The Korea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KWDI) was established in 1983 to act as the brain trust for the advancement of Korean women, carry out research on women, provide education and training to develop women's resources, and assist women's organizations in their activities.

IV. Progress and Challenges in the Economic Field

Between 1985 and 1992, economically active female population increased by 1.79 million or approximately 30%. The female labour force participation rate also increased from 41.9% in 1985 to 47.3% in 1992. The number of women employed in the organized sector of the industry, however, rose only by 1.2% between 1985 and 1992.

By 1992 data, the largest proportion of women employees, 1.72 million or 22.7% of all female employees, was in manufacturing. Those in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eries numbered 1.38 million or 18.1% of all employed women. They were followed by 1.34 million or 17.7% in the service industry, 1.33 million or 17.5% in sales, 1.1 million or 14.4% in clerical work, and 0.73 million or 9.6% in professional, technical, administrative and managerial occupations. The 1992 proportion of women in the latter category and that of the clerical category represented 4.2% increases respectively over those of 1985 when they stood at 5.4% and 10.2% respectively.

Of women in the organized sector, those aged between 15 and 19 years declined from 21.1% in 1985 to 17.4% in 1992, while those among the 25-34, 40-44 and 45-49 age groups increased from 35.9% ~ 43.6%, 58.2% and 59.2% in 1985 to 44.3% ~ 47.9%, 60.5% and 61.0% respectively by 1992. These figures show a high overall rate of economic participation by Korean women.

Self-employed Korean women, including those who headed their own business, registered a 20.8% increase between 1985 and 1992, indicating that a large bulk of the increased portion of the economically active female population became

self-employed rather than found jobs at business/industrial establishments. As to women in high-level decision-making positions in the private sector, such as board directors, company presidents and managing directors, no official statistics are available although a recent ESCAP-commissioned study revealed them to be minute in proportion.

Also notable was the rise in the number of women in part-time employment which reached nearly 1.1 million or 16.2% of total female employees by 1992. A majority of them were service workers typically employed as domestic helps, nursing aids, cooks, wall-paper plasterers, sales ladies, etc.

Measures for Gendre Equality in Employment

Article 6 of the revised Equal Employment Opportunity Act stipulates equal opportunity for women in recruitment and hiring. Thus, employment-related discriminations against women, which had long been beyond regulatory control even under the Labour Standards Act, have become subject to legal supervision. Those in violation of the law's provisions are liable to prosecution as stipulated under Article 23 of the Act.

Actions in the Public Domain

Government activities to implement the above Act during the past years included:

- i) campaigns directed towards raising the awareness of both the employers and employees regarding the Act;
- ii) administrative guidance for operationalizing the Act to all concerned;
- iii) monitoring of establishments, including hospitals, private colleges and universities, hotels, etc. for possible violation of the law and obliging those in actual violation to rectify their practices;
- iv) abolition of the structurally gendre-biased recruitment practices on the part of banks and secondary financial institutions which hired female high-school graduates as tellers, clerks, etc. and male college/university graduates for managerial positions;
- v) review of personnel practices of nearly 200 business/industrial establishments, including not only banks but secondary financial institutions and 30 or more conglomerates and guided to change their practices toward gendre equality;

- vi) monitoring of sexual discrimination in newspaper job advertisements;
- vii) survey of implementation of maternity leave;
- viii) establishment of low-cost day-care centers for the benefit of working mothers and their children;
- ix) establishment of 4,513 public day-care centers between 1985 and 1992;
- x) introduction of a maternity leave system that allows women 60 days of leave before or after child delivery and one additional year's child care leave without pay on an optionional basis;
- xi) making plans to oblige all establishments with more than 100 employees to strictly conform to the requirements of the Act by 1997; and
- xii) building of low-cost rental apartments for working women, especially unmarried women who often come from rural areas and have no access to adequate housing near their work places.

NGO Actions

Various NGOs, including particularly Korean National Council of Women, Korea Women's Association United and Korean Federation of Trade Unions, undertook campaigns, held symposia/seminars/workshops and submitted proposals, recommendations and/or published open letters, engaged in legal proceedings, established counselling centres, etc., to *inter alia* expand employment opportunities for women, protect working women's rights in various employment contexts, enforce adherence to the provisions of the Equal Employment Opportunity Act, promote public awareness of equal rights of all sexes in employment, develop action strategies and formulas. (A partial listing of activities carried out by the organizations in question is annexed.)

Economic Assessment of Household Labour

The Korean Family Law, as revised in 1990, by recognizing the right of women to a share in the family property at times of divorce, even if the property may be in their spouses' name, while at the same time stipulating a joint responsibility on the part of both the husband and the wife for family support, established for the first time in the country's history a legal ground for recognizing women's household labour as economic contributions assessable in market terms. In keeping with the tenet of that Law, the Inheritance and Gift Tax Act was revised in 1990 and again in 1994 as mentioned earlier. The Government is now preparing measures to reflect more concretely the new legal recognition of

the economic value of household labour in pertinent tax and insurance-related laws and regulations.

Access to Economic and Financial Resources

Bank loans are normally available to those with financial credibility and sufficient collateral. For that reason, gender-related guidelines and regulations governing loan transactions do not exist in the country. In reality, however, since the levels of women's economic participation and ownership of assets are considerably lower than those of men, women are at a disadvantage accessing loans and credits.

With adequate collateral, it is not necessary for women to obtain their spouses' written permission for financial transactions. In applying for credit cards, for instance, women and men are equally required to present proofs of income tax and property tax payments or of good credit rating.

Under the provisions of the Mother-Child Welfare Act of April 1989, women with children under 18 years of age receive special consideration when taking out loans for small business, children's education or medical care.

Women in Economic Decision-Making

The private sector of Asian countries is a virtual none-zone as far as women having a significant place or role in its decision-making was concerned. According to a number of ESCAP-commissioned country studies, only a handful among the sample corporations engaged in fully gender-equal personnel policies and practices. In some sample corporations, discrimination was open, particularly on the part of the employer. In others, it was more circumvent in that it was introduced through one type or another of structural manipulations, e.g. military service as an important qualification for employment and in the determination of the applicant's level of entry and corresponding remuneration; placing males in general function jobs with greater promotion opportunities on the one hand and females in special function jobs with narrower promotion opportunities on the other, and so prevent the latter's fuller development as career persons; taking advantage of women in high pressure sales jobs leading to their early withdrawal from employment; etc.. Needless to say, all these add up to keeping women from the possibility of growing into significant players in business/ industrial decision-making.

The chances for women reaching such positions because of their business ability were extremely small. The possibility of their doing so through financial leverage was equally small because very few women currently command the necessary resources. Having the "right family tie" was the surest paths for

women to join the decision structures but these, too, are rare commodities which only a small number of select women can resort to.

Among the factors associated with or underlying the persistent gender inequality were not only the employers' cultural biases but women's own self-depreciative perceptions and career preparations and their work attitude based on them. A survey finding by the Korean Women Reporters Club was interesting in this connection. Korean women leaders, whether in the business or other fields of endeavour, were found to possess expertise comparable to men's. They however fell significantly behind in decision-making abilities and organizational management. Among technical personnel as well there was little difference between the sexes in terms of specialized occupational skills but women lagged much behind men in decision-making ability. The factors associated with that weakness on the part of women leaders included: i) discriminatory recruitment, training and promotion practices (41.4%); ii) pressure of traditional gender role expectations; iii) time and energy constraints stemming from women's dual (domestic and career) responsibilities (28.2%); iv) lack of positive stance or self-effacing attitude in work performance (11.3%); v) early withdrawal from employment due to lack of career advancement prospects; and vi) insufficient training in leadership (17.9%).

V. Activities of Non-Governmental Women's Organizations

Some of the roles and contributions of selected non-governmental women's organizations have already been touched upon with reference to specific issues and fields. There are more than 50 women's organizations under the umbrella of Korean National Council of Women and Korean Women's Organizations United. Korean Federation of YWCA and Korean League of Women Voters are other major non-governmental women's organizations.

These NGOs have been increasingly active during the Decades for Women. Expanding women's political participation, introducing and revising laws in favour of women's equal status, promoting measures for expanded women's employment received special attention. They have also been the leading force in consumer protection and, more recently, they are highly active and effective in the area of environment protection. They hosted numerous seminars, conducted campaigns and provided leadership training to either reorient public perception regarding women's political participation, promote the interest of working women, or strengthen women's capabilities for participation in all these areas of interest to women.

The NGOs, through decades of persistent and concerted efforts, succeeded in mobilizing public opinion in support of the revision of the Family Law and the

enactment and revision of the Equal Employment Opportunity Act, and in influencing the Presidential decision to appoint three women Ministers.

The goals and objectives of Korean women's organizations generally coincide with women's self-development and empowerment concerns, creating conditions for wholesome family life, providing guidance to youths, contributing to society through voluntary service, and international exchange and fellowship. In 1993, there were approximately 2,200 active women's organizations affiliated with 80 or so nation-wide umbrella bodies based in Seoul.

The organizations grew effective in collaborative activities among themselves. This has been particularly evident in their promotion of women's economic and political participation, their efforts to advance the rights of working women, their leadership roles in consumer protection and the preservation of the environment, their campaigns against violence and calls for pertinent legislative actions, and their monitoring of the media for their implications for women. Through these efforts, women's organizations are gradually turning into expert bodies in their respective fields of interest and competence.

The Government supports NGOs in activities for which direct government intervention is neither possible nor desirable and, thus, promotes their participation in a wide range of national affairs.

VI. Conclusion and Recommendations

In sum, while significant progress has been made toward gender equality in various fields of endeavour for the advancement of women, the progress has mostly been in the nature of filling some basic prerequisites for realizing substantive and full gender equality. Outstanding issues and problems to be tackled in the years ahead are still numerous. Briefly, they include:

(In the Population and Health Field)

- . Growing imbalance in the male-female ratio due to continuing male preference.
- . Increasing number of elderly women alone due to longer female life expectancy over male's.
- . Absence of gender-specific vital statistics.
- . Absence of gender- and age-specific nutrition standards and statistics.

(In the Field of Education)

- . Lower female advance rates into institutions of higher learning.
- . Gender-biased selection of major fields.
- . Gender-biased career guidance on the part of teachers and gender-biased

career choices on the part of students.

- . Gender-restricted schools, e.g. science/technical schools.
- . Continuing dominance of gender-biased socio-cultural mores upon public and private perceptions and actions.

(In the legal, political and civil service fields)

- . Lags in the implementation of the various laws and regulations for gender equality. Serious attitudinal, institutional and administrative/technical obstacles to be surmounted in this connection.
- . Insignificant female representation among high-ranking government officials.
- . Women on the periphery of mainstream political arena. Only a handful of women in it without independent power-base.

(In the economic field)

- . Feminization and aging of the agricultural population without definitive measures to strengthen their capabilities to adequately shoulder their burden or to shore up their vulnerabilities, and without corresponding progress in their socio-economic status. This latter applies in the case of women in fisheries as well.
- . The female employment trend increasingly away from the formal to the non-formal sectors, most likely a sign of marginalization of women in the labour market.
- . Personnel policies and practices (embracing, among others, recruitment, placement, training, remuneration and promotion) of most business/industrial establishments that are either explicitly, implicitly or structurally biased against women.
- . Very high female employee turn-over rate that bespeaks a low job satisfaction level on the part of employed women. A majority of working women withdrew from employment within 7-10 years.
- . Shortage and qualitative weakness of institutional arrangements and services in support of women's economic participation. Although day care service is an area where progress has been notable, even here, considerable improvement in terms of personnel and facilities is needed.
- . Exclusion of women from the mainstream economic decision-making in general and business/industrial decision-making in particular.

None of the above findings are new. In fact much has been said and done to address them during the past two decades in national, regional and global contexts. They however have not produced results as fully as was expected. Women are still on the periphery and the possibility of their becoming full partners is not in sight. If they are to rise to the massive survival and development challenges that face us all today, hand in hand with men, their equal status in all the pertinent fields of national development and having a definitive

say regarding the direction of future national affairs would be of utmost importance, not only for women but for men as well, and not only for the present but next generations also.

But how can that state be achieved?

A comprehensive and systematic treatment of this question is impossible in the context of the present discussion. What follows therefore is an exposition, in bare outline, of an eclectic perception as to what alternative strategy might work during the next decade or so for realizing the goals of the women's decades more fully and meaningfully.

Changing People's Mind-Set

A good deal of efforts have been made in Korea to break down gender discriminatory cultural norms and practices of the past. Introducing and revising laws to promote gender equality, modifying the approach to and content of education, modifying educational environment, monitoring the mass media and steering them toward gender equal media contents, etc. have been part of such efforts. These however have been ad hoc and piece-meal and lacking in consistency, inter-sectoral coordination and strategic design. They did not command high priority in national development agenda and lacked commitment on the part of successive governments, NGOs, educators, media managers and experts, women and men alike. The matter did not receive priority in the global plans of actions until recently, having been overshadowed by the economic participation strategy.

Any future strategy for the advancement of women needs to pay close attention to approaches for utilizing mass media for reorienting people's thoughts and attitudes and to operationalizing those strategies with determination in national, regional and global contexts.

Equal and Accelerated Training

Education and training are part of the keys not only to strengthening women's job qualifications but to changing their self-perception. While a great deal have been done to expand training opportunities for women in Korea and Korean women have made great strides in raising their level of education as a result, the efforts have not been sufficient to place women on an equal footing with men in the various development sectors of the country, especially in the economic and political fields. Existing inequalities are likely to deepen as the

country comes under ever widening influences of global socio-economic change abetted by accelerating advances in science and technology.

Past efforts to reorient education toward gender equality have been too slow to keep pace with those changes and to help narrow the gender gap in various aspects of the national affairs. Called for in the education field also is a comprehensive and high priority training programmes aimed at motivating women and render them competent and knowledgeable in areas relevant to priority national development concerns. The importance of education and training geared to the business/industry of the future, sure to be dominated by science and technology, cannot be over-emphasized in this connection. Special fellowships may be offered to women for accelerated training in strategic job categories; institutions of higher learning may be encouraged with financial support to undertake intensive training of women in future-oriented specializations; the private sector may be offered tax exemptions for employing highly qualified women thus developed; etc. Target-group-specific and intensive training programmes must be developed and carried out by governments, educational institutions, business/industrial organizations, NGOs and ad hoc citizen groups. An overall coordination framework would be needed to link the actions on the part of all concerned.

Removing Structural Gender Bias in the Private Sector

As indicated, much have been accomplished in the area of equal employment opportunity legislation. But legal provisions have frequently been bypassed through structural mechanisms and their discretionary application. Gender biases that still hold sway among employers and their managers must take part of the blame for this situation and lack of closer and in-depth monitoring and analyses of individual corporate policies and practices in the present stage of the laws' enforcement the rest.

The women's and labour sectors of the governments, women's organizations, labour unions and other NGOs concerned working in cooperation would need to come up with a monitoring and enforcement arrangements that will make structural bypassing difficult, if not totally ineffective.

Alternative Avenues for Women's Participation in Economic Decision-Making

Two possibilities appear viable for broadening the base of women's economic participation. One is the enlargement of women's self-employment opportunities. At least three factors support pursuing this possibility. The first is that an

increasing number of women have already been opting for this mode of employment and have found it convenient as they try to cope with their dual roles.

The second is that in the highly automated future industrial context, job opportunities in the conventional employment sector are likely to be scarcer and competition in the job market tougher. Rather than try to find a niche in employment settings rapidly becoming obsolete, women could turn their attention to creating non-conventional work opportunities and work environment and make those their territory par excellence. Identifying and venturing in new marketable service industries and filling the huge gap in the environment industry are examples and there is no reason why women cannot enter these business/industrial fields en masse with small and large projects. Governments and private corporations alike should provide financial and technical support to individual women and women's organizations interested in such ventures. Tax exemptions for environment-oriented industries should be part of the financial support in question.

The third and last relates to the fact that, thanks to advanced auto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ies, much of future employment opportunities will be home-based and will lend themselves to self-employment and/or free-lancing. Women should equip themselves with up-to-date computer and communication technologies to lead the way toward a home-based work environment and to take full advantage of it. Home-based work environment is more likely to be individually oriented rather than group-oriented and in such work environment performance (individual) rather than gender (group) have a better chance of prevailing. Women may be able to compete with men on a better footing in such context provided they are equally competent as men in job qualifications and performance.

Introduction of social security systems that can adequately cover the income maintenance needs of the self-employed women, a string of services in support of their business and home-making requirements, promotion of a net-working among the self-employed women for information and technical exchange and for joint actions as needed, policy and administrative support on the part of the governments, among others, could facilitate the growth of this particular economic sub-sector.

The second possibility for broadening women's economic participation base may lie in consumer economy, the other side of production economy. The two sides are equally important and inseparable and women have held an edge in the former in the past and today. The nature of modern economy and its growth and development context are such that control over the economy as a whole is increasingly falling on the side of consumer economy. Yet the control infrastructure on that side has been quite haphazard to date and those who are

concerned with managing it have been few in number. Consequently, a good deal of past production activities have been wasted in want of consumer market, destructive in their lack of sensitivity to consumer well-being, self-contradictory in the absence of adequate ethical and technical consumer standards to which production could be geared. Production economy more or less dictated consumer economy and consumer habits and needs have often been the brain children of producers.

This pattern of relationship between the two facets of economy has wrought havoc in the environment and placed all living species in danger. Now may therefore be a crucial point in history when women, the long-standing major actor in consumer economy, to step in and forge and manage a control infrastructure for that economy with a view to humanizing the economy as a whole. Therein might lie not only an alternative avenue for women's participation in the private sector decision-making but an alternative area of focus for future endeavours toward the goals of the Women's Decades: equality, development and peace.

The Long and Short Strategies for Political Participation

One type or another of quota system such as in force in some countries and the functional field-related representation system such as found in Korea, which by several Korean women have been given seats in the parliament, have merits as interim measures. For these to be meaningful, however, women selected as candidates in the case of the former and those appointed to the parliament seats in the case of the latter must both be truly representative of either the women or the functional fields whom/which they supposedly serve. Their legitimacy, in other words, is of central importance.

Basically, however, political currency is power. In the long run, therefore, there is no real alternative, even for women, to developing and relying on independent power-base. This is the norm for political action. So that the priority question for women in politics is how to build that power-base.

Basic ingredients of political power are well-known. Supportable and time-sensitive social cause, actionable platform or political agenda stemming from the cause, a large network of supporters of that cause and agenda, knowledge/information/expertise, financial and/or material resources and organizational affiliation, among others. Unlike in some European and South Asian countries, Korea women have not yet reached the stage of power-preparedness in these terms. This however does not mean that they could not do so in the near future.

Doing so, however, will require that:

1. Korean women as a body make up their mind to send their own representatives to the national and local assemblies to voice and act in their interests;
2. Identify and adopt one or more political cause(s) and agenda responsive to the demands of our age, such as humanistic and pro-environment (sustainable) development;
3. Create a political fund for women based on a broad-based substantive support (successful pursuit of environment industry projects could generate good part of the necessary financial resources!);
4. Engage in extensive public education to mobilize women's own support and the support of the general public;
5. Undertake systematic and intensive training of political candidates, campaign workers, media experts and others toward successful political organization, campaigns, etc..

Upto now accomplishing these seemed unsurmountable. But are they really so? It would seem that the answer to this question really hinges on the political will of Korean women themselves. After all, they are the majority!!

ANNEX: Partial Listing of Activities by Non-Governmental Women's Organizations in the Employment Field of Korea

Korean National Council of Women:

- 1984: Presented a proposal to employ women as subway station attendants and road-side parking-meter monitors and, subsequently, women began to be placed in these jobs by city administrations.
- 1986: i) Published "A Declaration for the Elimination of Sexual Discrimination in the Employment of Teachers for Private Middle and High Schools;"
ii) Established a Working Women's Complaint Center;
iii) Sponsored a roundtable on the elimination of sexual discrimination in job retirement;
iv) Supported appeals to the Supreme Court against discriminatory retirement practices; and
v) Adopted A Recommendation for the Utilization of Female Human Resources.
- 1987: Sponsored a public debate on the Women's Retirement-on-Marriage issue.
- 1987, 1990: Submitted recommendations against discriminatory employment procedures for civil servants and against segregated employment procedures by local governments.
- 1989: Sponsored a Working Women's Seminar on Sexual Discrimination in Employment and Job Assignments and another seminar on the Discriminatory Retirement System.
- 1990: i) Sponsored a Debate on the Elimination of Sexual Discrimination in Employment Practices; and
ii) Published a book entitled Cases of Discrimination Against Working Women.
- 1991: Sponsored A Roundtable for the Advancement of Women in Employment.

- 1992: i) Sent A Letter to Support the Personnel Policies of the Sam Sung Industries to Eliminate Sexual Discrimination; and

- ii) Sponsored A Seminar to Assist Working Women in Child Care.

Korea Women's Association United:

- 1988: Sponsored A Public Discussion on the Equal Employment Opportunity Act.
- 1990: i) Sent an open letter to the public prosecutor in charge of the cases in violation of the Equal Employment Opportunity Act demanding fair trials;
ii) Sponsored an Emergency Debate on Employment Instability of Women Workers;
iii) Produced Big Wall Poster Cartoons on Women's Employment;
iv) Sponsored a Discussion on the "Retirement-Upon-Marriage" system.
- 1991: i) Sponsored A Discussion on the Development of Women's Policies;
ii) Sponsored a Discussion to Promote Stability of Employment;
iii) Published a Declaration on the Revision of the Labor Law Concerning Part-time Workers;
iv) Lobbied for the advancement of women in employment and for employment quotas for women;
v) Campaigned for the promotion of public awareness of day-care service needs of women workers.

Korean Federation of Trade Unions:

- 1988: Hosted a public forum on the implications of the Equal Employment Opportunity Act and related issues.
- 1989: Hosted a public debate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Equal Employment Opportunity Act.

1990: Sponsored A Policy Debate on the Equal Employment Opportunity Act.

1991: Held a seminar on the strategy for the securement of gender equality in employment conditions.

1990-1992: Sponsored annual National Conferences of Working Women to promote increased participation of women in employment and campaigned on the themes of "Equality, Development, Maternity and Peace," "Work Stability for Women, Maternity and Peace," and "Equal Work, Equal Value and Equal Wages" respectively.

여성과 환경 및 지탱가능한 발전

박영숙 / 한국환경·사회정책연구소 소장

미국 뉴욕에 자리하고 있는 WEDO(Women's Environment and Development Organization)는 1995년 북경에서 열릴 제4차 세계여성회의에서 NGO 포럼의 부분으로서 제2차 세계여성환경회의(World Women's Congress for a Healthy Planet)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 회의의 제1차 집회는 1992년 리우에서의 유엔 환경과 개발회의(UNCED)에 앞서 1991년 미국의 마이애미에서 개최된 바 있다. 이 회의의 성과는 "세계여성행동계획 21"(Women Action Agenda 21)을 만들어낸 것이다.

"세계여성행동계획 21"의 내용

- | | |
|---------------------|--------------|
| • 민주적 권리 | • 인구정책과 건강 |
| • 환경윤리 및 시행의무 | • 외채와 무역 |
| • 생물의 종다양성 보존과 생물공학 | • 소비와 여성 |
| • 핵발전과 대체에너지 | • 빈곤문제 |
| • 군사문제 | • 토지소유권 |
| • 여성의 권리 | • 식량안정과 신용대부 |

"세계여성행동계획 21"의 전문에서는 다음과 같은 비전을 제시하고 있다.

- | | |
|-----------------|--|
| • 건강하고 지탱가능한 지구 | • 토착민과 토지소유권, 문화, 관습존중 |
| • 세계평화 | • 모든 종의 보존 |
| • 인권존중 | • 인간의 기본권리(깨끗한 공기와 물, 식품, 주거, 건강, 교육, 개인의 자유와 정보에 대한 자유) |
| • 참여민주주의 | |
| • 자결권 | |

이상과 같은 비전중에서도 핵심적인 것은 여성의 권리부여(EMPOWERMENT)에 대한 결단 촉구이다. 여성에게 권리부여하는 일이 중요한 것은 이것이 지구상의 모든 인간의 형평성과 우리의 삶을 지탱해주는 생태계와의 조화모색의 중심적이며 역동적인 힘이 되기 때문이다.

이 전문에서는 여성이 환경운동의 촉매자이며 주동자임을 인정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책결정자들이 지구운명의 향방을 결정하는 일에 여성들이 담당하고 있는 역할과 필요성을 무시하고 있는 일에 대해 지적하고 있다.

이것은 리우 지구정상회의와 '92 NGO 지구환경회의에 제출된 바 극히 일부만이 양 회의의 협약에 반영되었다.

제2차 세계여성환경회의는 1995년 9월 1일 ~ 3일까지 북경회의의 NGO 포럼과 같은 장소에 설치될 여성과 환경장막(Tent)에서 개최될 예정이며 WEDO의 회원은 물론 관심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개방되고 있다. 세계 여러나라의 1만여명의 여성의 참가를 예상하고 있는 이 회의에서는 마이애미에서 채택된 여성행동계획 21과 리우회의의 공식 의제 21(Agenda 21)의 실천현황을 살피며 앞으로의 과제를 점검하는 일을 비롯해서 다양한 행사들이 전개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오늘날 국내외적으로 21세기의 주요현안이자 인류의 앞날이 걸려 있는 지구환경문제가 이처럼 별도로 다루어지고 있어서인지 금번 세계여성회의의 행동강령 1차 초안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그러나 이 회의의 3대 주제의 하나인 발전문제의 검토에 있어 지탱가능성을 고려해야 하는 데에서 환경적인 접근은 불가피하다. 이런 점을 감안할 때 우리에게도 정부대표단과 NGO참가팀의 각각의 회의참가 준비내용과 방법이 다를 수 있다. 그렇다고 두 집단의 성격의 차이로 인한 지구환경을 살리는 문제에 관한 시각마저 차이가 있어서는 안될 것이다.

오늘의 지구환경문제

오늘의 지구가 직면하고 있는 환경문제는 국제안전보장과 세계경제문제와 나란히 국제정치적의 3대 현안의 하나로 부상하기에 이르렀다. 지구환경의 문제가 국제정치무대에서 인정받게 된 것은 1972년 스톡홀름에서 개최되었던 유엔인간환경회의 이후의 일이다. 유엔은 그로부터 20년후인 1992년 리우에서 지구정상회의라고 불리워지는 사상 유례없는 규모의 유엔 환경과 개발회의를 개최한 바 있다. 그후 2년 동안에도 지난 6월에 영국의 맨체스터에서 열렸던 1994 지구환경회의를 비롯해서 크고 작은 회의들이 열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구환경상태는 악화일로에 있으며 자칫 인류는 파멸의 위기를 모면하기가 어려울 지경에 이르고 있다.

110여개 국가의 정상들을 비롯해 3만명 이상의 각계 지도자와 전문가, 그리고 운동가들이 참여하고 세계언론이 총집중된 가운데 열렸던 리우 유엔 환경과 개발회의의 12일간의 회의기간에도

- 4억5천6백만 파운드의 쓰레기가 바다에 투기되고
- 3백만명의 인구가 늘어났으며
- 6억7천2백만톤의 탄산가스와
- 1백68만대의 차량이 반출되었고
- 1만8천톤의 염화불화탄소가 방출되고
- 2천1백60평방마일의 산림이 사라지고
- 31만2천명의 어린이가 기아 등으로 사망
- 14만4천 배럴의 기름이 바다로 유출되고
- 3백억 달러의 군사비 지출

이 현상은 이 순간에도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특히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인류가 추구한 급격한 산업화 과정에서 대량생산, 대량소비 그리고 대량폐기의 잘못된 생활양식에 의한 것이다. 자연과의 조화를 중시하는 동양과는 달리 인간중심적이며 자연을 지배와 정복의 대상으로 삼아온 서구적인 사고와 강자의 논리로 운영되고 있는 선진국들이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은 부인할 수 없다. 근래에 와서는 다수의 개도국들이 현대화라는 이름의 선진국 추종형의 개발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구환경의 위기상황을 가중 그리고 가속화하고 있다. 여기에 더하여 문제되는 것은 동서, 남북을 포함한 세계가 오늘의 지구환경 위기에 대한 인식은 같이 하면서도 그 해결책과 시행대책 모색에 있어서의 합의도출은 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 원인은 국가간의, 집단간의 그리고 남북간의 이해대립이 첨예하기 때문이다.

예: 개도국의 인구증가문제와 선진국의 소비태도 문제 사이의 논쟁

현 세계인구 56억6천만명

2050년 1백억명(1.6%증가율 유지시) 1백25억명(증가율이 떨어지지 않을 경우)

증가율의 93%가 아시아, 아프리카, 중남미 등의 개도국

아시아 1950년대 세계인구의 55%

1993년에 60% 예상

20%의 세계인구(선진국)가 80%의 지구자원 소모

| 미국의 경우 에너지 사용량 중국의 12배, 이디오피아의 4백22배

| 6%의 세계인구가 40%의 자원소모

| 리우회의에서 부시 미국대통령이 생활양식은 흥정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함

리우에서 남측의 주장은 지난 수십년간의 북의 주도하에 추진한 개발이 제3세계에 남긴 것은 천연자원과 금융자원을 대거 제1세계로 들어가게 하는 반면 대부분의 제3세계 국가들에게는 막대한 채무와 환경파괴 그리고 심각한 빈곤을 떠넘겼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북측의 현행 개발구조와 체제가 긴급히 재조정되어야 하며 제3세계의 선진국 추종형 정책의 방향이 전환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리우에서의 남측의 요구는 지구환경보전을 위한 재정지원과 기술이전문제였다.

여기에 대한 북측의 주장은 기득권(생활양식 포함) 포기를 거부하고 초대국 의식에서 출발한 약육강식의 '힘의 논리'의 정당성을 주장하며 경제성 없는 환경보전 지원을 위한 재정과 기술은 없다고 강변한다. 다국적 기업의 리우에서의 위세당당함도 이런 논리에 근거를 두고 있다.

오늘의 국제정치, 경제구조 및 체제에 의해 날로 악화일로에 있는 남북간의, 국가간의 격차가 도처에서 대립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더욱 어려운 것은 지구환경문제 해결의 열쇠가 당장의 편이를 선호하게 마련인 유권자를 의식하여 단기적인 안목을 가질 수 밖에 없는 정부와 이윤에 집착할 수 밖에 없는 기업 특히 다국적 기업에게 주어지고 있다는데 있다.

강대국과 강자의 논리에 의해 만들어지고 움직여지고 있는 세계의 정치, 경제, 사회구조와 체제 속에서 지구환경의 보전과 복구작업은 어렵다는 결론이다. '지구는 하나인데 세계는 하나가 아니다'라는 데 문제가 있다.

유엔환경기구(UNEP)의 사무총장인 모스타파 툴바가 "브라질회의가 인류의 생존여부를 가늠하는 마지막 회의가 될지도 모른다"고 경고한 그 회의에서 지구환경 위기극복의 핵심문제들이 의제에서 조차 배제된 사실에서 오늘의 환경문제에 관련한 국제정치적 교착상태의 심각성을 드러내고 있다. 배제된 의제들은 다국적 기업의 문제, 인구문제, 빈곤문제, 소비태도문제, 군사문제, 화석연료사용문제, 핵문제, 의제 21의 실효를 거두기 위한 강제규정, 재정 그리고 목표와 일정 설정 문제들이다.

그래서 리우회의는 실패했다고 평가하는 견해가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리우의 '92지구환경회의의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로서는 환경단체나 시민단체들이 리우회의가 경제외교의 장으로 전략

한 지구정상회의의 '리우선언문'과 '의제 21'의 내용에 반발하여 독자적인 '지구헌장'과 '의제 21'을 마련하여 서명했던 것을 기억한다. 그렇게 제정된 단체협약에는 지구정상회의에서 배제된 의제들이 포함되어 있으며 각 나라의 NGO들은 이 협약을 실행에 옮겨야 하는 의무를 가진다.

해결의 길은 없는가?

지구환경을 살리는 문제에서와 마찬가지로 국제환경정치의 교착상태를 풀어내는 일에서도 세계는 민간환경단체의 활동에 크게 기대를 걸고 있다. 민간단체가 만들어내는 국제적인 압력 밖에는 해결의 길이 없다고 보기 때문이다.

인간의 삶의 터전인 생태계와 인류가 살아남을 수 있게 하는 하나 남은 길로서 민간의 참여중에서도 '여성의 참여'를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리우회의에서 배제된 핵심의제들이 바로 여성 행동계획 21의 내용으로 되고 있다는 점으로 미루어 보아도 여성의 환경인식을 짐작할 수 있다. 그리고 여성행동계획 21의 내용이 지구정상회의의 의제에서 배제되었다는 것은 여성의 의견이 수렴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 주목해야 한다.

민간단체에 속한 우리들에게 걸려있는 기대가 큰 것은 당연한 일이다. 민간단체의 강점은 국경, 계층, 계급, 피부색, 종교 등의 일체의 벽을 넘어서 연대하고, 주장하고, 행동할 수 있으며 국가이익에 매임없이 지구환경을 지키기 위한 목표를 설정하고 활동을 할 수 있다는 데 있다.

특히 동양권에 속한 우리들은 과학적이 아니라고 하지만 지혜로 다스리는, 인간과 자연의 조화를 중시하는 동양문화권에 속해 있어 더불어 사는 삶의 경험을 갖고 있다는 데 또 하나의 강점을 지니고 있다. 우리는 지구환경을 살리는 문제에 있어서 우리의 특수 자산을 크게 살려 국제적인 영향력을 발휘해야만 한다(오는 10월 21일~23일까지 열리는 일본에서의 준비회의에서부터 시도해야 함).

유엔과 대부분의 회원국들은 유엔의 중요한 정책, 계획 그리고 사업에 관해 민간단체와 협력하고 제휴하는 일을 점차 늘려가고 있다. 만족스럽지는 못했지만 1천4백20개의 단체가 참여했던 1992년도 리우에서의 유엔 환경과 개발회의에서 시작해서 1993년도의 유엔 인권회의와 1994년도의 인구회의에서와 마찬가지로 1993년도 3월에 코펜하겐에서 열릴 사회개발을 위한 세계정상회의(WSSD)에서 그리고 북경 세계여성대회에서도 민간단체의 참여의 문호는 개방되어 있다. 우리가 어떻게 참여하느냐에 따라서 영향력 발휘의 여부가 결정된다.

현재 유엔기구를 중심으로 하는 여성의 국제적 협상력 조직과 영향력 발휘는 WEDO가 선두에서 하고 있다. 86개국의 가맹국을 가지고 있는 이 단체의 10명의 공동대표중에는 아시아권에서는 인도네시아가 포함되어 있을 뿐이다. 극동아시아의 참여가 없는 점이 아쉽다. GNP와 교역량이 각각 세계의 15위와 12위인 우리나라의 수도 서울의 국제화 수준이 방콕과 마닐라에도 뒤지는 46위에 머물고 있다는 사실에서도 우리의 국제 진출이 부진하다는 사실을 절감하지만 이번 기회에 이 장벽을 여성들이 뛰어넘어야 한다.

우리가 가진 또 하나의 강점은 생명의 담지자이기도 한 여성이라는 점이다. 오늘의 지구환경을 생명을 위협하는 상황으로 만드는데 주도적인 역할은 남성들이 했다. 그것도 서구의 그리고 강자들에게 의해서이다. 여성이 지니고 있는 잠재력은 아직 쓰여져 보지 않았기 때문에 미지수이고 그 령기에 바로 새로운 가능성과 대안이 될 수 있다. 남성에게만 더이상 말할 수 없는 현실이 여성을 대안으로 할 수 밖에 없게 한다. 지금까지의 지구를 살리는 논의나 실행에 있어서 반대가 아니면 무관심의 입장을 취해 온 것은 남성주도의 정부나 기업이었다. 반면 시민으로 구성된 환경

운동의 주동은 여성들이 담당하고 있다. 그리고 악화된 환경의 피해는 어린이와 노인을 포함하는 약자인 여성들이 가장 크게 받고 있다. 따라서 여성은 지구환경문제의 관리자와 해결사가 될 수 밖에 없으며 또 되고 있다. 그런데 여성들은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가? 여성들은 그들의 목소리를 어떻게 결의기구에 전달하느냐 하는 것마저 고민해야 하는 처지에 놓여 있다.

무엇이 문제인가?

WEDO의 보고에 의하면 유엔 사무총장이 지난 6월 6일에서 10일까지 마련한 발전문제에 관한 국제청문회에 초청된 33명의 전문가 가운데에는 여성이 불과 7명이었으며 WEDO의 공동의장이며 아프리카의 그린벨트 운동가인 왕가이 마타이 한사람만이 민간단체 참가자였다는 것이다. 여성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할 수 밖에 없는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1992년 리우회의의 1백78명 정식대표 중에는 여성이 10명도 되지 못했다. 1975년을 여성의 해로 선포하고 동등한 참여를 독려하고 있는 유엔회의 자체에서조차 여성의 참여권은 무시되고 있는 것이다.

그럴 수 밖에 없는 이유를 우리는 유엔이 갖고 있는 여성에 대한 인식에서부터 찾아야 한다. 유엔의 정책중에서 환경문제와 인구문제의 예를 들면 유엔은 여성을 문제해결을 위한 도구로 만들기 위한 혜택(교육, 건강, 경제참여 등)의 수혜자로 아니면 청소년과 토착민과 같이 약자로 묶어 피보호자로서의 수동적인 위치에 묶어두고 있는 점이다. 더욱 문제되는 것은 여성들 스스로가 유엔의 의식에 정식으로 도전한 흔적이 보이지 않는다는 데 있다.

무엇을 할 것인가?

세계의 여성들은 지금 1995년도에 북경에서 개최 예정인 제4차 세계여성회의의 준비로 여념이 없다. 우리나라 여성계도 마찬가지이다. 여기에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우리는 어떠한 입장에서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 것인가이다. 이미 마련된 세계여성의 행동강령을 숙지하고 관심분야의 순위조정(예:원안의 ①의사결정 및 권한배분에서의 참여 불평등이 수정안의 ①여성에 대한 빈곤의 지속적 부담가중)하고 내용을 보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행동강령을 성취해내는 획기적인 전략모색이라고 생각한다. 그 전략은 여성이 능동적으로 확보해내는 것이어야 한다.

의회의 진출을 기준으로 평가된 우리나라 여성의 지위가 1993년도 국제의회연맹이 1백56개국을 대상으로 조사한 것에 의하면 1백42위를 기록하고 있어 당당하지 못하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1996년이면 OECD(경제협력개발회의)에 가입을 계획하리 만큼 경제대국의 대열에 서있으며 유엔 여성지위향상위원회의 회원국이 되었다. 이제 우리나라 여성들은 그 위상답게 앞으로는 모든 회의에서 공헌을 해야 한다.

다행스런 것은 우리가 하기에 따라서는 영향력을 발휘할 수도 있는 기회가 주어지고 있다. 유엔을 비롯한 국제기구들이 계획하고 있는 국제회의 이외에도 1995년 북경 세계여성회의에 앞서 우리나라에서 한국여성의 지도력하에 국제여성회의들이 개최될 예정이다. 그중의 하나가 유엔의 경제사회이사사회(ECOSOC)에 협의 자격을 가진 단체의 하나인 세계 YWCA대회이고 또 하나는 북경회의의 NGO 포럼을 위한 세계여성지도자회의이다. 이러한 국제적인 여성회의가 세계여성의 집단적인 요구를 결의기구에 전달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이다. 문제는 어떤 요구를 어떻게 할 것인가이

다. 분명한 것은 통념에 입각한 통상적인 것이 되어서는 안된다. 지금까지 해오던 것을 되풀이하거나 또 하나의 것을 보태는 수준에 머물러서는 안된다. 1995년에는 유엔이 기구개편을 예정하고 있어서 세계여성들이 이번 기회에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는 변혁을 성취해 낼 수도 있다고 본다.

세계여성의 관심분야는 행동강령에 제시된 것 이외에도 정치, 경제, 사회, 평화, 환경 등과 관련된 국제정치의 교착상태를 풀어내는 일 등의 많은 과제가 있다. 그러나 그들 문제들을 풀어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더 여성의 권한배분(EMPOWERMENT)의 성취가 가장 중요하다. 이것을 얻기 위해서는 세계여성들의 강한 연대가 필요하다.

오늘의 세계는 국가의 힘이 약화되는 반면 유엔기구, 민간단체, 다국적 기업 등과 같은 사회적 조직의 힘이 커지는 추세에 있다. 세계인구의 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여성이 각국의 특수사정을 극복하고 힘을 합친다면 여성 차별과 환경수탈의 장벽을 무너뜨릴 상상 밖의 힘이 생기고도 남을 것이다. 이 두 장벽의 뿌리는 하나이다. 그것은 자연정복이 약자정복으로 이어지며 약자인 여성은 정복의 대상이 되는 동시에 경시의 대상이 되어 왔다. 그리고 유엔이 1975년을 여성의 해로 선포한 이래 20년 동안 여성문제에 뚜렷한 진전도 인정할 수 없는 처지에 있다. 오늘 우리가 도전해야 할 일은 "어떻게 '불가능'을 성취해내는가"하는 것이다.

한국 NGO 포럼준비위원회에게 제언:

- ① 여성의 EMPOWERMENT의 전략 집중논의
- ② 여성의 연대를 현실화하기 위한 세계여성 성명서 작성 및 서명운동 전개(모든 회의에서)
- ③ 여성차별을 철폐하기 위한 국제적 제도마련위한 운동전개(환경을 위해 환경규제를 만들듯이)등
- ④ 이상과 같은 활동을 북경회의에서 전개하기 위한 정부 및 사회의 지원을 얻어낼 것

여성의 직업훈련과 개발

김준희

1. 서론

과거 20여년 동안 세계 각국 여성경제활동의 증가와 특히 유엔이 정한 1975년 세계여성의 해를 계기로 여성에 대한 폭발적인 관심은 주목할만하다. 한국은 지난 10년간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남성의 참가율보다 높은 증가율을 나타내고 있으며 특히 중·고령자의 참가율이 높아지고 있다. 또한 특기 할 만한 것은 연령계층이 낮을수록 가정과 관계없이 취업하겠다는 여성의 수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의식구조를 들 수 있다. 이러한 긍정적인 직업에 대한 인식에도 불구하고 여성의 취업자는 남성의 진출과 비교하여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1988년 정부의 남녀고용 평등법이 발효되었지만 취업하는데 있어서는 남성과 비교하여 너무나 어려운 점이 많다. 특히 고학력 여성들의 취업 난은 심각하며 취업한 경우라도 임금 면에서 같은 학력의 남성에 비하여 훨씬 적은 액수를 받고 있다. (약 56%) 한국의 여성 노동력의 많은 부분은 아직도 낮은 연령, 저학력, 기술이 필요 없는 분야, 책임을 질 필요가 없는 곳 즉 단순 노동력을 요하는 분야와 주로 여성적인 직업에 분포되어 있다. 그러나 근래 나타난 통계에 의하면 전문분야에서 일하는 여성의 수가 점점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앞으로는 경제발전과 사회적 변화로 인하여 행정 및 기술전문 분야에서 많은 여성기술인력을 필요로 할 것으로 보아 여성의 취업기회 확대와 직업여건이 증진되리라고 본다. 한국의 경제발전 여건이 훈련된 기술자를 요구할 것으로 미루어 직업훈련만이 보다 많은 여성 기술인력을 배출할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인력을 필요로 하는 기업이나 여성자신들도 직업훈련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경제적 발전을 이루기 위하여 학교 교육과 더불어 직업교육을 통하여 보다 많은 훈련된 기술 인력을 배출하여야 한다는 정부의 정책이기도 하다.

이러한 사회적 요구와 여성자신들의 자기개발, 성장, 성취감, 경제력을 위한 사회참여를 위하여 보다 발전된 기술적인 직업훈련 과정이 필요하며, 여성자신들에게도 만족할만한 취업여건에 부응하기 위하여 전문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직업

훈련을 받을 필요가 있다. 많은 여성들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저임금 단순노동 직은 경제발전과 첨단기술개발로 인하여 위협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빠른 기술발전과 변화에 따라 여성들을 위한 직업훈련과 개발을 계획 수행함에 있어 조사 및 연구가 불가피하다. 그러므로 여성인력을 위한 직업기술, 업무수행 능력, 계획, 업무관계 및 업무효율 과 능률을 향상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2. 여성과 직업

과학기술 발전은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그리고 특히 여성의 지위향상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그리고 경제활동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여성들의 수가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1992년 한국의 인구는 43,663,000명이며 여자는 21,685,000명으로, 49.7%이다. 15세 이상 경제활동 인구는 60.9%로 남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75.3%이며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47.3%로써 남성에 비해 현격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물론, 여성이 남성보다 경제활동에 참가하는 비율이 낮은 것은 세계적인 현상이다.

여성들이 편중되어 있는 직종을 보면 판매원, 비서, 가정부, 사서, 종업원, 간호사, 봉제완구제조원, 재봉사, 자수, 회계, 요리사, 타자원, 전화교환수, 미용사, 탁아모, 선생, 행정보조원 등 대체적으로 전통적인 여성직종에 종사하고 있음을 본다. 남성우위의 전통사회 속에서 남녀공학이 많지 않은 환경에서 교육을 받은 여성들이 남성직종 분야에 도전한다는 것이 쉬운일은 아니다. 남녀 성역할 고정관념이 직업에 대한 고정관념으로 연결되어 지므로 직업선택에 어려운 장벽을 만들고 있다. 사회적으로는 남녀고용 평등법이 발효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노동시장에서는 여러 가지 형태로 남녀차별이 자행되고 있다.

근래에는 소위 남성분야로 일컬어지는 비전통적인 분야의 직업훈련을 받으려는 여성들의 수가 점차로 증가하고 있다. 그러하므로 보다 넓은 취업의 기회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며 또 기술, 행정 및 전문사업 분야에 진출하는 여성의 수가 증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와는 반대로 농업, 어업과 임업에 종사하는 여성의 수는 점차로 감소하고 있는 현상이다.

이러한 여러 가지 사회적인 어려운 여건에 대비하기 위하여 여성들은 직업에 대한 확고한 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업무수행에 있어서도 자신이 여성이기를 의식하기보다는 직업인으로서 남성과 동등하게 능률적으로 임하므로 인정을 받을 수 있게 되어야 한다. 그리고 사회적으로 깊이 인식되어 있는 여성에 대한 전통적인 관념과 편견을 긍정적으로 유도하기 위하여도 많은 노력을 하여야 한다. 동시에 남성과 동등하게 인정받고 기회를 얻기 위해서도 자신들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가져서 성 역할 고정관념에서 탈피하여야 한다.

여성들에게는 사회적인 제약이 너무나 많다. <여성들은 취업을 하고 있거나 아니거나 간에 여성만이 가사와 가족 일을 우선순위에 두어야 한다는 사회 문화적인 통념 때문에 사회활동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다.> 그래서 대부분 여성들은 자녀양육에 어려운 직업은 기피하고 직업과 가사를 양립하는데 보다 안이한 직업을 선호하는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젊은 여성들의 직업태도는 평생직으로 생각하기 보다는 결혼, 출산, 육아 등으로 인해 쉽게 이직하는 관행에 있어 사용자는 교육훈련에 대한 투자 기피와 기술촉적 가능한 직종에 배치를 기피하며 취업의 기회마저도 망설이는 악순환이 나타난다. 이러한 현상은 여성자신의 의식에도 문제가 있지만 그들의 남편과 시부모의 뿌리 깊은 전통 의식에 많은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3. 직업훈련과 개발

공공기관과 사설직업 훈련기관에는 여성들이 진정 사회적으로 발돋움하기 위한 다양한 직업훈련과정이 없다. 기업과 여성들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전반적인 직업훈련 과정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대부분의 과정들은 여성적인 직종에 편중되어 있다. 여성들의 사회환경 여건에서 여성들로 하여금 비전통적인 직종에 훈련을 받도록 유도한다는 것이 매우 어려운 일이라는 하나 고정관념에서 탈피할 수 있도록 훈련프로그램을 계획 수행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여성경제활동 구성비율 40.2%를 보아서도 기업들은 여러 분야에서 여성들에게 사회참여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그래야 만이 직업훈련이 취업과 바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기업과 긴밀한 협조가 이루어져야 만이 가능한 일이다.

현대는 핵가정으로 소수의 자녀와 고학력의 주부들이 많다. 결혼후 퇴직하여 자녀양육후에 재취업이 어려우므로 계속 취업하여 활동하는 여성들도 많다. 이러한 현실적인 여건을 해소하고 기업들의 긴밀한 협조를 얻어 여성들의 사회참여의 기회를 개발할 수 있는 길을 연구해야 할 것이다. (재택근무나 시간제근무를 할 수 있는 직종훈련개발도 필요하다.)

직업훈련 프로그램은 국가의 발전계획과 목적에 기초를 두어 국가와 사회경제적 시책에 부응하여야 한다. 인력의 수요공급과 필요로 하는 기술분야의 방향과 수요에 민감하여 직업훈련 후에 취업의 기회와 연결될 수 있도록 훈련과정을 정비하여야 한다. 훌륭하게 계획된 직업훈련만이 훈련생들의 기술, 업무수행, 효율성, 능률성을 증진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여성들을 위하여 보다 많은 취업의 기회를 확대하는 길만이 직업훈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며 여성의 역할을 만족시킬 수 있다. 직종훈련계획이 늦어져 시대의 요구에 맞지 않은 훈련과정들은 효율적인 훈련이 되지 못하므로 과감히 방향 전환하여야 한다.

아직도 여성들은 기회를 포착하려고 하지 않으며 노력을 투자하려 하지 않는다. 그리고 여성들의 단기간 취업과 확고하지 않은 직업의식 때문에 기업주들이 여성들에게 취업의 기회 부여를 망설인다는 사실을 인지하여야 한다. 기업들이 여성들에게 남성과 동등한 취업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으므로 직업훈련을 받은 후에도 충분하게 흡수할 수 있는 취업처가 많지 않다. 고학력일수록 남성들보다 훨씬 취업의 기회가 적으며 실업상태에서 취업처가 나타날 때까지 기다릴수 밖에 없다.

〈장기간 동안 자녀양육후에 취업하기를 희망하는 여성들을 위한 과정도 필요하다.〉 여성들은 기술분야나 행정전문분야에 취업하기를 망설이며 자신들에게 잠재되어 있는 능력을 발휘해보려고 하지도 않는다. 장기간 가사에만 종사한 후에 취업하려는 여성들은 노동시장에 적응할 수 있도록 자신을 훈련시켜야 할 것이다. 사장된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여성 또는 평생 처음으로 취업하기를 원하는 여성들을 위한 특별한 직업훈련과정 및 재훈련이 필요하다.

매우 중요하고 해결되어야 할 여성들의 자연스러운 사회활동기간의 윤회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여성들의 재취업이 매우 어려운 사회적인 환경 때문에 젊은 취업여성들은 직업과 가사 및 양육의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다. 최소 가치적

인 고가의 가사돕는이의 도움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다. 자녀양육기간에 있는 젊은 여성들은 퇴직하여 자녀양육과 가사에 전념하고 자녀가 어느 정도 성장하면 중년여성으로 재취업하여 활동한 후에 퇴직하고 젊은 여성이 또 취업하는 여성들의 사회활동기간의 윤회가 잘 이루어 지면 사회와 기업에 여성들의 기여도는 엄청날 것이다. 아직도 남아선호 사상과 남성우위의 사회여건에서 사회문화적인 의식변화와 특히 남성들의 의식변화가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도 직장에서는 남성들이 중년여성에 대하여 동료로 여기지 않는 풍토도 있다.

여성들을 위한 사회참여 지도 및 잠재력 개발을 위한 훈련과정도 필요하다. 홍보매체를 통하여 직업훈련을 알리고 여성들의 관심과 흥미를 유도하여야 한다. 직업훈련생 모집방법도 직종훈련내용에 맞추어 쇄신되어야 한다.

기업과의 공동직업훈련 계획이 바람직하지만 공공직업훈련기관들이 기업과 연결이 되어 있으므로 어렵고 기업의 사내직업훈련원 자체가 필요한 인력을 충당하므로 인정직업훈련원이나 사설직업훈련원의 훈련생을 흡수하려고 하지 않는다. 중소기업체에서만 현장교육과 실습을 통해 필요한 인력을 흡수한다.

여성들이 고정관념과 편견에서 탈피할 수 있는 공개 사회교육이 필요하다. 그리고 여러 곳에 직업훈련과 공개강좌에 대한 홍보 지를 비치하여야 한다. 특히 비전통적인 직종에 대한 홍보와 자세한 안내가 있어 여성들의 인식을 도와 수요로 하는 기능을 훈련을 통해 연마하고 기술자로서 보다 나은 조건의 직업에 취업할 수 있도록 하며 여성의 사회기여도와 취업율을 증가시켜야 한다.

직업훈련에 대한 캠페인도 필요하다. 고등학교 및 잠재된 인력이 있는 곳을 방문 설명회를 갖고 홍보지도 배부한다. 텔레비전 및 라디오 등 방송통신 매체를 통한 홍보활동도 직업훈련 안내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기업을 방문 그들을 격려하고 여성들의 사회환경, 잠재된 능력, 인력구조에 대한 이해를 돕고 그들의 협조를 얻어 앞으로는 남성들과 마찬가지로 여성들에게도 넓은 취업의 기회를 부여하도록 로비활동도 바람직하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조직하여 그들의 지원과 협조를 받도록 한다.

중소기업들과 유대하여 공동직업훈련을 계획하고 시도해 본다. 그리하여 훈련 생들을 그 기업에 취업시킬 수 있도록 하며 사회변화에 따른 직업의 변화와 새로운 직종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 선진국의 직업변화와 훈련에 대한 조사 연구도 필요하다. 직업안내도 중요하지만 직업에 대한 인식과 지도는 어린 나이에서 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사회경제 발전과 변화에 따른 인력수급 계획에 부응하기 위하여 효율적인 직업 훈련을 수행하기 위한 다각적인 방법과 기술이 요구된다.

앞으로는 전문적인 기술, 행정, 관리분야의 빠른 발전이 기대되므로 보다 세분화되고 기능적인 직업훈련 계획이 사회변화에 적응하기 위한 방법이 될 것이다. 그리고 직업훈련기관에서는 직업훈련에 대한 상담지도가 시급하며 직종에 대한 최근 자료와 자세한 홍보지가 비치되어야 한다. 사회적으로도 여성들의 사회참여를 돕고 직업인으로서 이중부담을 해소하기 위하여 기업 내나 지역사회에 부담 없이 활용할 수 있는 탁아소와 어린이 집이 개설되어야 한다.

여성들이 시간제근무와 재택근무를 할 수 있도록 기업들의 협조를 얻어야 할 것이며 이에 따른 직업훈련 계획을 수립하여 그들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어야 하며 훈련생들의 사회교육도 병행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고령화사회를 대비하여 고령여성들을 위한 직업개발과 그들을 위한 사회교육계획도 수립하여야 한다. 단순히 직업훈련만 시킬 것이 아니라 직업훈련, 기술훈련에 아무런 관심이 없는 층을 위해서도 직업교육이 필요하다. 또한 여성노동자들을 위하여 사회환경과 노동시장에서의 그들의 위치에 대한 인식을 돕기 위해 사회교육이 필요하다.

직업훈련을 수행하는 담당자들에 대한 조직적인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훈련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목적달성도, 계획 실천에 있어서의 책임감, 기여도, 실천태도, 성취도 등에 대한 세밀한 평가가 실시되어야 한다. 그리고 직업훈련도 시대의 요구에 맞는지 조정평가 되어야 한다. 담당자들을 위한 연수프로그램도 사회변화에 민감하게 부응하며 새로운 직종개발을 위하여 효율적으로 능률적으로 직업훈련을 계획 실천하기 위하여 주기적으로 그리고 필요시마다 실시되어야 한다.

여성단체들은 여성들과 관계 되는 정책, 법안 수립시 또는 필요로 하는 법안 수립을 건의하기 위한 단합 로비활동과 캠페인 등도 필요하다. 주기적으로 기업을 방문하고 그들을 초청하여 자문회의를 개최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현재 시행하고 있는 직종훈련을 보면 다음과 같다. 재봉, 장신구 디자인, 귀금속 만들기, 타자, 컴퓨터, 미용사, 조리사, 봉제완구, 회계, 도배, 제과제빵, 염색, 목각, 도자기, 자수, 카메라, 비디오, 손뜨개, 피아노 조율, 도장, 판매, 탁아모, 간병인, 파출부, 피부 관리사, 제도사, 메이컵, 세탁사, 커튼봉제, 비서, 호텔미화부, 에니메이터, 텍스타일 디자인, 보석감정, 손해사정, 실내장식, 의류수선, 속기사, 등이다.

앞으로의 우리 사회는 분명히 여러 분야 즉 인구구조, 생활환경, 경제여건, 산업구조, 첨단기술, 홍보매체에서 발전과 변화를 거듭할 것이라고 기대한다. 21세기를 맞이 하면서 여성을 위한 보다 많은 취업기회와 직종이 여성자신들의 성장, 성취감, 만족감을 대비하기 위해 조사 연구되어져야 한다. 조심스럽게 미래의 직업들에 대해서 접근해보면 몇 가지의 방향을 예측할 수 있다. 앞으로의 직업들은 현재의 직업들보다 지식 집약적 성격이 훨씬 강화될 것이다. 근래의 컴퓨터의 발전과 사용증대에 의해 더 많은 일들이 자동화기계로 대체될 것이기 때문에 단순한 성격의 일들은 상대적으로 크게 감소될 것이다. 반면에 기술 집약적이고 지식 집약적 성격의 일들은 상당한 정도로 증가될 것으로 예측된다.

두번째로 인구구조의 변화에 의해 노인인구가 상대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산업과 직업의 수요가 증가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노인인구의 직장진출도 한층 늘어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셋째, 직업의 전문화가 가속화되면서 방송예술, 디자인, 경영기술등의 전문화된 직업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이다. 넷째, 정보화 사회로의 옮겨감이 속도를 더해감에 따라 정보를 수집하고 배분하는 직업들에 대한 수요증가가 전망된다. 다섯째, 첨단기술이 지속적으로 개발되고 활용이 증대되면서 기술의 개발과 보급, 그리고 활용에 관련된 첨단직업들이 일정하게 늘어날 것으로 예측된다. 여섯째, 국제화, 개방화가 지속되면서 이에 관련되는 국제관계 업무수요가 증가할 것이다.

직업사회의 변화는 앞으로 자신의 직업을 선택해야 하는 여성들에게는 여러가지 어려움을 줄 것이다. 실제로 현재의 사회 여건 속에서 여성들의 취업이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어려움 들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변화하는 세계와 이사회에 훌륭하게 적응하기 위하여 확고한 가치관과 신념을 가져야 할 것이다. 또한 직업훈련기관들도 변화하는 사회에 민감하게 대처하여 여성들의 지위향상과 취업기회 확대를 위하여 직업훈련과 직종개발의 조사 및 연구를 계속해야 할 것이다.

남녀평등에 장애가 되는 한국여성의 고용 불안정 현황

1994. 10.

정강자(한국여성민우회 공동대표)

1. 한국의 평등실현에 가장 근원적인 장애물인 여성노동자에 대한 차별

1) UN헌장은 "인종, 성, 언어 또는 종교에 의한 차별없이 모든 인권과 기본적 자유의 실현"을 천명하고 있다.

79년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에 관한 협약'과 90년 국제인권규약에서도 성에 대한 차별없이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시민적, 정치적 권리가 존중되고 확보되어야 함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ILO의 51년, 동일가치의 노동에 대한 남녀동일보수에 관한조약, 52년 모성보호에 관한 조약, 81년 가족책임이 있는 남녀근로자의 기회균등에 관한 조약, 90년 야간근로에 관한 조약및 권고에서도 "모든 인간은 성에 관계없이 자유 및 존엄과 경제적 보장 및 기회균등의 조건에 있어서 물질적 복지및 정신적 발전을 추구할 권리"를 천명하고 있다.

2) 한국의 헌법에서도 "성에 의해 차별을 받지 않는다"와, 근기법, 평등법 등 노동관계법 등에서 남녀평등 조항이 있다.

하지만 법내용이 위의 국제조약들에 훨씬 못미칠뿐만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인 모든 영역에서 여성들이 차별받고 있다. 특히 여성노동자들이 받고 있는 차별은 한국사회의 평등실현에 있어 가장 기초적이고 가장 근원적인 장애물이 되고 있다.

3) 93년 2/4분기 한국의 여성경제활동 참가율은 꾸준히 상승하여, 47.6%이다. (비교: 일본 50.7% 홍콩 46.2%)

그러나 무엇보다도 남녀노동시장이 분리되어 있음으로 인해, 생산직여성은 경공업 중심의 저임금부분과 단순기능에, 사무직은 남성을 보조하는 단순업무에 취업해있다.

한국의 여성노동자의 노동시간은 주 48.4시간(남자는 49.1시간)으로 세계 최고 수준이고(비교: 일본 여성노동자 37.9시간), 반면 여성의 임금은 남성의 56.7%밖에 안되는 차별임금을 받고 있다.

또한 결혼, 임신으로 인한 퇴직뿐 아니라, 남녀차별, 정년퇴직도 여전히 사회적 관행으로 되어 있고, 모집, 채용, 교육, 배치, 승진, 해고등에서의 남녀차별 또한 여전하다.

4) 한편 "압박이 올면 집안이 망한다"는 기질된 이데올로기를 통해 여성의 순종성을 강조했고, 이러한 순종성과 열악한 노동조건, 모성피괴리는 여성노동자의 희생을 발판으로 한국이 아시아의 4미리용이라 불리는 경제발전국으로 도약하게 된 것은 그

누구도 부인하지 못하는 사실이다.

1970년대 여성노동자들은 민주노조를 건설하고 저임금, 장시간노동에 맞서 열심히 투쟁했고, 그 투쟁정신을 이어받아 80년대 여성노동자들은 차별을 거부하고 불평등에 맞서 투쟁해왔고, 주체적인 의식의 향상과 평등실현을 위한 다각적인 운동의 전개로 통해 사회적 권익 향상에 기여해왔다.

“평생, 평등노동권 확보”라는 슬로건은 여성의 고용구조와 고용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한국 여성노동자의 가장 1차적인 요구이자 실천과제로 제기되고 있다.

2. 고용평등 실현을 위한 여성노동자들의 힘찬 전진

이러한 사실에 따라

1) 대표적인 고용차별인 여행원제 폐지

88년 평등법이 제정되어 남녀 차별이 금지되었으나, 실제 현장에서는 남녀차별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여행원제이다.

여성노동자 동일 학력임에도 불구하고 남자는 행원, 여자는 여행원으로 남녀간 직급을 달리 하여 초임에서부터 차별을 받고, 업무에서도 여자는 상구업무, 남자는 영업업무로 분리하여 여성에게는 승진, 교육에서도 차별을 두었다.

이런 차별에 부당함을 느낀 여성노동자들은 이에 대한 문제의식을 많이 갖게 되었고, 노조가 이를 시정하기 위한 운동을 전개할 것을 요구해왔다. 여성들은 여직원회, 노조 여성부 활동을 통해 여행원제 폐지를 요구해왔고, 국책은행 노조들이 연대하여 평등법을 이행하지 않는 현실에서 남녀간 임금격차를 시정하기 위해 소용애산의 8%를 지급하라는 요구를 하며 1,000명이 정부청사앞에서 시위를 전개하였다. 이를 계기로 노동부가 91년 여행원제를 폐지토록 발표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여전히 기업들이 여행원제를 폐지하지 않음으로 인해, 93년 노동부가 평등법 자율점검실시지침을 하달하였고, 이를 계기로 노조들이 적극적으로 대규모여성집회, 교육, 홍보, 시위, 토론회, 단체교섭 등을 통해 93년 금융권에서 여행원제 폐지되는 성과를 이뤄냈다.

2) 차별임금 철폐를 위한 운동

93년 현재 한국의 여성노동자의 임금은 남성노동자의 56%이다. 여전히 국제적으로 남녀격차가 두드러진 나라이기는 하나, 80년 특히 87년 노동자대투쟁을 통해 남녀차별 임금 해소를 위한 여성노동자들의 운동을 통해 임금격차는 점점 축소되어 왔다.

남녀임금격차추이

	'80	'86	'87	'88	'92
남녀임금격차	42.9%	48.5%	50.9%	52.0%	55.9%

88년-90년 민주적인 노조를 중심으로 입두시기에 정물인상 대신 정역인상 요구를 보편화하였고, 일부 산업장에서는 여성에게 임금을 더 많이 인상하여 차별해소에 성과

를 거두기도 하였다.

한편 여성노동자회, 여성민우회, 여연 등 여성운동계에서는 차별 해소를 위한 제도적 장치로써 평등법 개정운동을 전개해, 동노동임 조항을 법적으로 명시토록 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평등법의 이 조항에도 불구하고 남녀간 차별임금은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에, 93년이후 남녀 단일호봉제 쟁취를 위해 투쟁을 전개하는 사업장이 증가하였다. 대한투자신탁을 중심으로 제2금융권에서는 동일학력인 경우 남녀 초임초봉 동일 적용, 동일노동 동일임금 지급을 요구하는 투쟁을 전개하여 쟁취해나갔다. 한편 91년 국민은행 여직원이 3년간 남자행원에 비해 덜 받은 임금을 지급토록 임금청구소송을 제기하는 등 개인적, 조직적인 대응을 통해 차별임금 해소를 전개해 왔다.

3) 결혼, 임신퇴직, 남녀차별정년퇴직 철폐를 위한 운동

76년 여행원의 '결혼각시제철폐'투쟁이후에도 여성의 평생평등노동권을 원천봉쇄하는 결혼퇴직, 조기정년제는 여전히 존재해왔다. 82년 교원회의 조기정년퇴직투쟁, 85년 섬유회사 이경숙의 조기정년철폐소송, 86년 대한투자신탁 주소녀의 결혼퇴직철폐투쟁 이후에도 91년 재지공장 기혼여성 3명의 차별정년퇴직투쟁(여자 53세, 남자 55세) 91년 중앙대학교 조무원의 조기퇴직철폐투쟁(여자 28세, 남자 58세) 91년 MBC 이니운시 2명의 결혼퇴직 철폐투쟁, 92년 전화교원회의 남녀차별정년철폐투쟁(여자 53세, 남자 58세) 등이 줄기차게 전개되어 왔다.

20% in 1990 전산업, 전직종에 걸쳐 심지어 여교사에게까지 가해져온 결혼퇴직, 조기정년제 철폐투쟁은 이 문제가 사회적인 문제임을 자각하고 기업의 탄압에도 불구하고 앞장서온 여성노동자, 그리고 민주적인 노조의 활동, 여성단체와의 연대를 통해 가능했다.

4) 모집, 채용, 교육, 승진에서의 차별 철폐를 위한 운동

88년에 제정된 평등법 이후에도 여전히 현장에서의 남녀차별은 심각한 상태로, 91년 130개 업체 대상으로 실시한 평등법 시행평가 결과 여성에 대한 치우가 개선된 사업장은 20%에 불과하다. 법에 대한 정부의 홍보 미흡으로 인해 93년 노총의 설문조사 결과, 평등법의 내용에 대해 61%의 여성노동자가 모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93년 12월 정부가 1416개 업체 대상으로 평등법 위반 현황 조사 결과에서도 37.9%의 기업이 평등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사실에 따라 동일 학력인 경우에도 여자는 남성보다 낮은 직급에 채용되어 남자는 기획 공보 영업 총무 기사업무를 하는 반면, 여자는 전산 조립공 미싱사 등에 채용되는 것이 일반적인 관행이다. 한편 교육에서도 남자는 업무관련 교육을, 여자는 애절교육을 시키고, 남녀의 연수과정에서의 목표도 이에 다르게 설정되어 실시되고 있다. 여자는 권리직으로 승진할 기회나 승진시험 자격이 전혀 없고, 수험자격이 갖어도 남성보다 근속년수가 더 필요로 하며, 특히 제조업 생산직 여성은 권리직으로의 승진이 이에 불가능한 현실이다.

한편 89년 서울지역여학생 대표자협의회는 사원모집광고에서 지원자격을 남성으로 제한한 대표적 기업 4개사를 고발하였지만, 100만의 벌금에 처해질 정도로 정부의 평등실현의 의지는 대단히 빈약했었다. 이에 94년 5월 기160센치이상 체중 50키로이하

이러한 사실에 따라
43539
76/208 1854
→ 기비 100%가 11월 21일 1992
1485(7/26경사)

는 용모제한으로 여성을 모집한 44개 대표기업들을 여성단체가 평등법위반으로 집단 고발하였다.

위와 같은 투쟁들을 통해 한국의 여성노동자들은 평등에 대한 인식을 확대했고, 조직의 확대라는 성과를 확보하게 되었다.

노동자 여성단체연합이다. - 근로여성복지기초위원회
여성노동조합 - 전국여성노동조합
여성노동조합 - 전국여성노동조합
→ 임금, 파트타임, 해외인력 증가

2002
1972년 42% 증가

3. 최근 여성의 평등권을 저해하는 정부의 정책과 여성노동자의 현황

1) 정부의 여성노동력에 대한 시각은 여전히 전근대적.

현정부의 여성노동을 보는 시각은 지난 94년 2월 국무총리 산하 '여성정책심의위원회'에서 통과된 '근로여성복지기본계획'에서 분명히 드러나고 있다. 이 계획에서는 여성노동력을 단순지임금으로 활용하고, 고용이 불안정한 파트타임 용역등을 확대함과 동시에 모성보호의 수준을 후퇴한다는 정책을 제시하고 있다.

최근 한국의 노동시장동향에서 가장 두드러진 현상은 여성화, 고령화, 고학력화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여성노동을 바라보는 이러한 시각은 여전히 전근대적이다.

기혼여성인력, 임시직, 고령자, 파트타임, 해외인력활용방안이라는 정부의 인력활용방안중에서도 정부와 자본이 가장 선호하는 형태가 바로 기혼여성인력과 임시직활용이다.

특히 87년 노동자대투쟁이후 노동자의 권리의식의 확대, 조직과 투쟁의 확대로 인해 정부와 자본은 노조를 약화하고 노동자간의 분열정책으로 비정규직 노동자 고용전략을 채택하여 왔다. 이로 인해 가장 피해를 받는 노동자는 비로 여성이다. 이들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대부분이 여성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국의 여성노동력은 값싼 노동, 임시노동, 주변화된 노동력으로 위치지어져 있다.

2) 고용불안정의 두 축: 실업과 비정규노동의 확대

한국의 여성노동자가 겪고 있는 핵심적인 고용문제는 여성의 실업(해고)와 비정규노동의 확대에 있다.

(1) 실업(해고)

86년부터 정부가 진행해온 산업구조조정은 특히 노동자들의 투쟁이 최고조에 달했던 80년대말부터 본격화되어 왔다.

한국의 구조조정은 한국산업의 균형있는 발전과 노동자들의 생활보장이 전혀 되지 않는 상태로 진행되고 있다. 이로 인해 가장 피해를 보는 자가 바로 여성노동자들이다. 왜냐하면 여성들이 주로 취업해있는 경공업에서 해고, 실업문제가 대표적으로 대두되기 때문이다.

실업은 주로 외자기업의 철수와 자본이전, 중소기업의 폐업, 부도, 하청개설화로 인한 집단해고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다음에 제시된 자료는 여성노동자의 해고의 심각한 현실을 드러내주는 수치들이다.

○ 92년 50인이상 고용사업체의 휴폐업으로 76,000여명의 노동자들이 실직(전년대비 33.7% 증가)

○ 89-91년 부산 고무산업체의 휴폐업, 감원으로 2만여명의 노동자 실직.

○ 서울수출공단의 경우 87년-90년 사이에 21.1%가 실직, 마산수출자유지역에서는

87-92년사이에 47%가 실직

0 89년 한해에만도 외자기업 32개업체에서 8,224명이 실직.

이들 실직된 노동자들은 직업훈련을 통한 이직, 실업에 대한 생계보장이 대한 대책없이 그대로 실직되었고, 이들 여성노동자들은 대개 가내하청, 영세공장에 취업하거나 서비스업으로 전락하게 되었다.

(2)고용불안정

여성이 당하고 있는 고용불안정은 임시직, 파트타임, 용역노동 등 비정규직으로 취업하는 문제와, 영세 하청에 취업함으로써 인해 겪게 되는 문제로 정리된다.

현재 비정규직노동자들의 정확한 통계수치조차 잡히지 않고 있다. 일반적으로 여성노동자의 1/3이 비정규직으로 일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용역노동자의 경우 92년 40만명에 달하고 있는데, 공장, 금융, 보험, 서비스업 전 산업에 걸쳐 확대되고 있다. 헌법과 노동법에 의해 용역은 중간착취이기 때문에 불법이지만, 최근 정부는 파견법제정을 통해 합법화하려고 하는 시도를 계속 하고 있다.

이들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동일한 노동조건에서 동일업무를 함에도 불구하고 임금, 휴가, 승진, 복지 등에서 차별받고 있다. 이외에도 영세하청과 가내노동이 공단주변에 광범위하게 존재하고 있어 여성노동력이 주변화되고 있고 열악한 노동조건에 처해 있지만, 공식통계조차 없다. 이것은 정부가 여성의 고용을 확대하고 고용안정을 이루기 위한 정책이 부재함을 단적으로 증명하는 것이다.

위와 같은 정부정책은 그간의 여성노동자의 평생, 평등노동권 실현의 기반을 무너뜨리는 한국사회의 심각한 사회문제인 것이다.

한편 이러한 고용문제는 여성노동자의 조직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쳐, 급속도로 여성의 조직률이 감소되고 있다. 89년 조직된 여성노동자는 53만명이었는데, 93년 12월 현재 35만명으로, 여성중 10%만이 조직되어 있다.

특히 최근 외국인노동자를 연수훈련생이라는 명목으로 제조업체에 고용하고 있다.(최근 정부는 해외인력 2만명을 들여올 계획이고, 신발, 섬유업종에 베트남, 스리랑카, 방글라데시의 여성노동자 1만 5천명을 훈련목적으로 데려왔다.)

이는 한국여성노동자들의 고용촉진과 고용불안정에 대한 해결 대책 없이 정부기 편법적으로 외국인 노동자들을 고용한다는 점에서, 그리고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인권보장이 전혀 되고 있지 못한 점에서 커다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3)제도화된 또다른 성차별 신인사제도 -> 강제하청

은행의 여행원제 폐지이후 기업에서는 편법적으로 신인사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이는 직종별고소제도(단순반복적인 일상적 사무노동을 하는 일반직, 고도의 경영 기획 업무를 담당하는 종합직)를 통해 성별, 학력별로 노동자들을 분리시키는 것으로, 성과 학력에 의한 고용차별을 기업내에서 합법적으로 제도화하는 것일 뿐 아니라, 노동자간의 경쟁을 유발하여 노동강도를 강화시켜내고 있는 것이다.

· 대니얼의 인공기.
· 1894년 대영국.

이러한 신인사제도는 도입과정에서 노조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없이 일방적으로 진행되고 있어 현재 많은 업체에서의 도입이 확대되고 있고, 생산직에까지 확산되고 있다.

4)직장내 성희롱

일하는 여성들에게 일터를 떠나게 만드는 또하나의 중요한 문제는 직장내 성희롱 및 성폭력이다. 이제까지 여성의 몸을 빚대어 하는 성적 농담이나 접촉 등의 갖가지 성희롱은 남성중심의 성문화와 직장생활의 윤택유로 직장여성이라면 당연히 견뎌내야 하는 하는 일로 인식돼 왔다.

그리나 1993년 8월 국내에서는 한국최초로 성희롱사건이 민사소송으로 제기되어 사회에 여론화하였다. 교수에 의한 종교성희롱사건인 이사건은 현재 2심에 계류중이다. 한국여성민우회가 1993년도 조사한 바에 의하면 한국의 직장여성의 87%가 한번 이상의 성희롱을 경험하였으며 많은 경우에 직장을 떠나기까지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여성단체들과 노동조합은 성희롱을 고용상의 불평등문제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규제와 처벌을 위한 입법을 요구하고 있다.

5)자본이전

산업구조조정 내용중 하나가 바로 국제경쟁력이 없는 사양산업을 해외로 이전하는 것이다. 대표적인 산업이 고무(신발), 섬유, 봉제산업 등이다.

이러한 해외이전은 한국노동자에게는 해고와 실업을, 자본이 이전된 나라의 노동자에게는 착취로 귀결되고 있다. 자본이 이전된 나라의 여성노동자들은 저임금, 장시간노동에 흑사당하고 있고, 이전된 나라의 노동법조차 준수되고 있지 못하다.

한국에서 철수한 외국자본: 미국, 일본, 독일
한국자본이 이전되는 나라: 중국, 베트남,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시아

한편 88년-94년까지 총 360명의 직업병환자(이황화탄소 중독, 사망 16명, 2명 자살)를 낸 원진레이온이 폐업을 하고, 그 기계를 중국에 수출함으로써 인해 이제 중국의 노동자들이 끔찍한 직업병에 흑사당할 지경에 이르렀다.

6)빈약한 탁아시설과 미흡한 정부지원정책

현재 여성노동과 관련하여 정부가 최대로 주력하고 있는 정책이 바로 탁아정책이다. 94년 현재 보육시설을 필요로 하는 아동의 15%만이 수용될 정도로 한국의 탁아시설은 대단히 부족하다. 또한 육아가 사회적인 문제임을 인식하고 탁아소설치, 운영에 1차적인 책임을 정부와 기업이 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기업은 이에 대해 매우 소극적이다.

또한 최근에는 탁아소를 시장논리에 맡길려는 정책을 갖고 있어, 향후 이에 대한 문제가 심각하게 제기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4. 평등실현을 향한 정책대안

87년 이후 전개된 생산직, 사무 전문직 여성노동자들의 투쟁과 여성노동자회, 여성민우회의 활동, 여연 등 여성단체와의 연대운동을 통해 한국에서는 당면시기 여성노동자문제를 이슈화하고 조직, 투쟁의 확대를 가져왔다.

또한 정부정책에 대한 비판과 촉구를 통해, ILO조약과 여성노동관련 국제조약이 빠른 시일내에 시행되도록 활동해왔다. 한편 여성노동자문제 해결을 위해 국제적인 연대의 중요함을 인식하고 국제연대 활동을 전개해왔다.

우리는 평등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우리의 노력이 중단할 수도, 멈출 수도 없다. 한국여성노동자의 평생평등노동권 확보를 위해 우리는 다음과 같은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실천해오고 있다.

- 1) 노조결성의 자유 및 노조의 정치활동 보장
- 2) 동일노동 동일임금 실시
- 3) 고용보험제 실시 및 고용안정 확보
- 4) 파트타임 노동자 및 가내노동자에 대한 보호, *정비한* *2007년 12월 15일*
- 5) 출산휴가 90일 및 유급육아휴직 확보, 생리휴가 폐지 반대
- 6) 직업훈련 및 취업기회의 확대
- 7) 탁아소 설치 확대 및 정부지원 확대
- 8) 직업병에 대한 철저한 조사, 관리 감독 및 치료, 보상의 확대
- 9) 파견노동 합법화 반대
- 10) 남녀평등교육 실시 *인력개발에 관한 7월 12일 제3차 회의*

취업, 임금, 직업훈련에서의 남녀평등실현, 노조결성의 자유보장, 가내노동자에 대한 보호, 90일 출산휴가 및 유급육아휴직제 확보는 아시아 전지역의 공통적인 과제이다. 한국의 여성노동자들은 전 세계 여성노동자들과 단결, 전진을 위해 함께 운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다.

UR과 여성농민

발제 : 고 은 실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사무국장)

글의 순서

1. UR협상과 국내농업의 피해
 - 1) 농업전반에 미치는 영향
 - 2) 쌀시장 개방에 따른 피해
2. 협상의 문제점
 - 1) 정부협상자체의 문제점
 - 2) 미국의 문제점
3. 수입개방반대와 자주농업실현을 위한 여성농민의 실천활동
 - 1)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소개
 - 2) 여성농민의 현실
 - 3) 수입개방반대와 여성농민개혁과제
4. 맺음말

1. UR협상과 국내농업의 피해

한국농업은 지난 30년동안 군사정권하에서 농업경기 정책과 농정부재에 따른 농정의 위기가 가속화 되어왔다. 특히 지난 12월 15일 타결된 UR 협상에 의해 그 위기가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다.

이 위기는 농업에만 단순히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국가경제 전체와 국민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1) 농업 전반에 미치는 영향

UR협상 타결에 따른 농산물 시장을 개방함으로써

- 92년 총 GNP중 농림수산업 비중은 7.8%인데 수입자유화가 이루어지는 2001년에는 2.8%로 격감하며
- 농림수산업 취업자의 비중도 92년 16%에서 2001년 7.9%로 반감될 것이며 농가인구는 13.1%에서 2001년 5.1%가 될 것으로 예측되며
- 농수산물 무역적자는 92년 42.6억불이던 것이 2001년 130.3억불로 증가될 것이며
- 농업성장률은 수입자유화가 시작되는 95년에 전년대비 -1.1%의 마이너스 성장이 예상되고 95-2001년까지 연평균 0.1%의 저성장을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는 한마디로 한국농업이 최악의 상황을 맞이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특히 쌀시장 개방의 경우 통일시대를 예비해가야 할 시점에서 심각한 식량안보 위기가 초래될 전망이다.

2) 쌀시장 개방에 따른 피해

쌀은 우리민족에 있어서 단순한 먹거리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다. 이러한 쌀생산기반이 무너지는 것은 곧 우리 민족문화가 무너지는 것과 다름이 아니다. 쌀시장이 개방되므로써,

- 농업소득의 44%, 농가소득의 22%, 전체 농가의 85%가 재배를 하고 있어 쌀농사를 못한다면 농업을 포기하는 것과 같다.
- 농업을 포기한 농민들이 갈 곳은 대도시 변두리나 달동네 뿐이며 이들의 유입은 심각한 도시문제를 야기시키게 된다.
- 더불어 농업관련 사업이 창고업, 농기계, 비료, 농약 등 관련산업의 위축과 붕괴가 불가피하다.
- 정부가 국제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농가당 경지면적을 1.2ha에서 최소한 20ha로 늘릴 경우 최소한 2백만명 이상이 실업자로 전락해야 한다.
- 그리고 농업은 경제적 가치를 떠나 홍수조절기능, 수자원 함양기능, 대기정화기능, 환경보전기능 등 엄청난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 특히 쌀시장의 개방으로 장차 통일된 국가의 국민식량을 수입쌀에 의존해야 할 상황이 예견된다. 이는 민족자주권과 관련한 심각한 문제이다.

2. 협상진행의 문제점

세계자유무역주의 실현과 협상참여국의 균형된 이익을 반영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GATT UR협상은 미국을 비롯한 강대국의 이익만을 달성한채 타결되었다.

농산물의 주요 수출국인 케인즈 그룹의 숨은 의도와 특히 세계 곡물시장의 85%를 석권하고 있는 미국 곡물메이저들의 구도대로 진행되었을 뿐이었다.

1) 정부 협상자세의 문제점

지난 86년 UR협상이 시작된 이후 지난 12월 타결 때까지 정부의 협상자세에 심각한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협상대표부는 상대국을 대상으로 협상을 하기보다는 거꾸로 국민을 상대로 개방의 당위성만을 강조해 왔다. 심지어 92년 12월 박수길대사는 "쌀개방을 하든지 아니면 GATT를 탈퇴하든지 양자택일을 해야 한다."며 국민들을 위협하기도 했다. 이는 정부가 협상을 적극적으로 대처하기보다는 국내 여론을 조작하여 UR협상의 본질을 호도하기에 바빴다.

2) 미국의 문제점

미국은 이번 UR 협상이 진행된 과정에서 자국의 이익을 관철하기 위해 GATT 협약을 무시하고 무원칙하게 협상을 진행하였다.

북미자유협정(NAFTA)의 농산물 분야에서 GATT 11조 2-C항(국내 생산조정을 전제로 한 수입제한 허용)에 의한 수입제한을 캐나다에 허용했으며 이는 UR협상에서 「예외없는 관세화」를 주장하는 미국의 입장에 반한 주장이다.

또한 멕시코로부터 농산물에 대한 수입제한을 명시했고 그 댓가로 웨이버 조항과 국내 농업조정법(AAA)에 의해 현재 수입을 제한하고 있는 목화, 유제품, 사탕수수, 변화 등 14개 품목에 대해 문제삼지 않기로 했다.

이는 한국을 비롯한 다른 나라에 대해서는 「예외없는 관세화」를 강력히 주장하면서 미국 내부적으로는 스스로 예외를 인정하는 미국 통상전략의 이중성을 보이는 것이다.

EC는 블레어 하우스 협상에서 애초의 협상보다는 수출보조금 삭감폭을 더욱 감축함은 물론 재고농산물에 대한 수출보조금은 허용을 받았다.

결국 정부는 미국전략의 이중성을 국민들에게 축소하여 홍보하였고 UR협상에 대한 국민들의 반대여론을 이용하여 협상테이블에서 이를 배경으로 보다 유리한 입장을 취할 수 있었음에도 미국과의 협상에서 일방적으로 국내시장을 내주었다.

3. 수입개방 반대와 자주농업실현을 위한 여성농민의 실천활동

수입개방과 계속되는 정부의 개방농정은 농업과 농촌의 위기를 가속화 시켰다. 또한 이로 인한 가장 큰 피해자는 바로 여성농민이다. 전여농은 이러한 여성농민의 삶을 개선하고, 민족농업을 바로 세워 나가기 위해 여성농민대중의 힘에 근거한 실천활동을 벌이고 있다.

1) 전국여성농민회 소개

전여농은 89년 12월에 창립하여 현재 전국 9개도 50여군에서 조직활동을 활발히 펼치고 있다.

전여농의 조직목적은 나라의 자주, 민주, 통일의 대의에 복무하며, 여성농민의 삶을 억압하고 있는 일체의 봉건적 악습과 제약을 극복하고 여성으로, 농민으로의 제권리를 되찾는 것이다.

전여농은 직접생산자인 여성농민이 조직구성원이 될 수 있다. 조직체계는 마을, 면, 군, 도, 전국을 포괄하는 단일조직체계이다. 또한 마을에서부터 전국까지 각급단위의 회의체계를 통해 민주집중제를 의 사결정원칙으로 삼고 있다.

주요활동으로는 교육, 선전, 정책연구, 조사, 조직, 재정마련을 위한 활동을 벌이고 있다. 또한 사안에 따른 집회 및 시위를 조직적이고, 통일적으로 벌여 여성농민의 이해를 대변하고 정치적 영향력을 확장시킨다.

2) 여성농민의 현실

오늘날 한국 농업은 여성농민에 의해서 유지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여성농민은 농촌인구의 절반이상(51.7%)를 차지하고 있으며 농업노동력의 절반이상(53%)를 담당하고 있고 농가경제의 주요한 담당자이다.

그러나, 여성농민의 이러한 역할은 올바르게 평가되고 있지 못하며, 그에 걸맞는 지위를 갖지 못하고 있다.

여성농민을 생산의 주체로 인정하기 보다는 단순한 생산보조세력으로 규정하고 있다.

여성농민은 첫째, 생산수단(토지, 농기계이용등)으로부터 소외되어 있고 둘째, 농업경영(농사일정과 품종선택등)으로부터 소외되어 있다. 이는 여성농민이 농업생산주체로 나서는데 근본적인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여성농민은 과중한 노동으로 인한 농부병에 시달리고 있으며, 산후 3일만에 들일을 하는 경우가 66%에 이를 정도로 모성이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 또한 농촌의 탁아, 육아시설이 전무한 상태에서 농가의 어린이들은 항상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여성농민이 겪는 어려움은 농촌의 정치, 사회, 경제 모든측면에서의 소외와 더불어 도시에 비해 심각한 문화적 박탈감에 시달리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여성농민의 단결과 각성만이 한국의 농업과 농촌을 살리는 유일한 대안임을 의심하는 사람은 없다.

3) 수입개방반대와 여성농민개혁과제

전여농은 94년 활동목표를 수입개방반대와 여성농민개혁과제 실현으로 정했다.

93년 11월 <쌀및 기초농산물 수입개방반대 '93 전국여성농민대회>를 시작으로 전국의 농민투쟁이 벌어졌고, 쌀포대를 입고 냉해로 인해 쪽정이가 된 벼를 서울시민에게 나눠주며 소비주체인 여성들과 전국민이 수입개방반대, UR협상저지운동에 동참해줄것을 호소했다.

전국적으로 UR협상거부를 위한 서명운동을 벌이고, 쌀및 기초농산물수입반대를 위한 선전전과 피켓팅을 중심으로 소규모 집회를 연이어서 여는등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였다.

또한(13개조항)으로된 여성농민개혁과제를 제시하고 이를 위한 실천을 벌이고 있다. 그 개혁안의 내용은

- 첫째, 여성농민의 농업생산주체로서 지위와 권한을 확보하는것으로
- 1) 여성농민의 농업노동및 가사노동의 정당한 가치를 실현할것
 - 2) 여성농민 농업노동의 기계화를 추진할것
 - 3) 농협등 농민단체의 여성농민가입자격 보장할것
 - 4) 정부의 각종지원, 후계자양성사업에 여성농민의 지분배정할것
 - 5) 여성농민주체의 식품가공업의 제조, 판매사업 지원할것
 - 6) 여성단체들이 주체가되는 유통활동을 지원할것.
- 둘째, 여성농민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을 시행하고 농촌의 제반환

경을 개선하는것으로

1) 여성농민의 건강권을 지키고 모성보호를 위한 제도를 마련할것

2) 농촌지역에 국공립탁아소를 우선적으로 설치할것

3) 농촌학교의 교육여건을 개선하고 농민자녀의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을 실시할것

4) 농촌지역의 열악한 주거및 생활환경을 개선할것

5) 면, 군단위에 문화, 오락, 사회교육시설등을 공립으로 설치, 운영할것.

셋째, 여성농민의 사회참여를 높이기위한 정책으로

1) 농촌지역에 봉건적 관습을 폐지하기위해 힘쓸것

2) 지역사회에서 여성농민의 정치참여를 높이기위한 제도개선을 할것

3) 여성농민의 통일주역으로 나서기위해 남북간 여성농민들의 교류를 지원할것등이다.

4. 맺음말

한국의 농업, 농민은 이제 더이상 내어줄 것이 없다. 언제나 그랬듯이 이러한 위기에 여성농민들은 아무런 보호장치도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보수노동, 농업예비군으로 이용되고 있을뿐이다.

국제화를 부르짖고 지구촌을 내세우는 이면에는 고통과 가난에 신음하는 여성농민이 있다는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

그러나, 여성농민들은 생명을 잉태하고 출산의 고통을 감내하는 위대한 모성을 지니고 있으며, 생활의 지혜와 이웃과 더불어 살아가는 매우 훌륭한 장기를 가지고 있다. 또한 누구보다 사회의 발전과 나라의 민주화를 열망하고 있다. 여성농민이 투쟁의 현장에서 가장 비타협적으로 싸우는힘은 바로 여기에 있다.

진정한 국제화와 지구촌의 평화는 이러한 여성농민들의 노력과 노동하는 전세계 여성들의 각성과 연대가 이루어질때만이 가능하다.

바라건데, 오늘의 이 만남이 한국여성농민의 고통만을 호소하는데 그치지 않고, 진정한 대안이 모색되어 함께 전진할수 있는 기초가 되었으면 한다.

한국 여성 근로자의 건강실태

변영순

1. 쟁점

건강은 노동의 원천으로 국가산업의 발전은 건강한 근로자의 노동으로부터 이루어진다. 특히 오늘날과 같은 기술집약적인 산업국가에서는 건강을 기초로 한 노동력이 산업발전의 기초를 이룬다. 이와같이 산업발전이 절대적 원인이 되고 있는 노동은 인간의 신체·생리 및 심리적 능력의 관계내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근로자의 건강상태와 이와 관련된 조건에 따라 생산성에 각각 다른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러나 최근에 이르러서야 노동과 관련하여 근로자의 건강문제를 논의하기에 이르렀고, 또 최근의 공업화에 따라 생산성을 증대시키려는 노력과 함께 산업장의 환경문제가 크게 주목되고 있는 실정으로 이러한 현상은 생산활동에 직접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근로자의 건강을 증진시킴으로써 생산성을 높일 수 있다는 구체적인 목적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 산업발전을 위해서는 산업장 근로자의 개인 건강문제와 이에 따른 일련의 문제들이 산업발전 과정상 당면하는 중요한 과제로 특히 여성 근로자의 경우 남자에 비해 작업환경에 민감한 감수성을 보일 뿐만 아니라 남자와의 신체구조 및 생리적 기능의 차이로 인해 생산성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사실과 더불어 오늘날 산업사회에 있어서 여성 근로자의 수가 날로 더욱 증가되어가고 있는 추세에 있음을 감안한다면 여성 근로자의 건강문제가 개인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여성이 생산성을 재분배한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2세의 건강이라는 측면에서, 더 나아가서는 국가사회의 건강지표를 나타내고 있어 이들을 위한 복지차원의 측면에서 중요시되는 문제로 무엇보다도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중요한 과제라 아니할 수 없다. 따라서 무엇보다도 여성 근로자에게서 문제시되는 건강문제가 무엇이고 이에 따른 일련의 문제점들이 무엇인지 알아보는 것이 급선무라 하겠다.

2. 장애요인

근로자의 전체 건강이란 근로조건과 작업환경 등 직장에 부수되는 요인 이외에도 일반사회 및 경제적인 영향을 받게 마련이다. 따라서 여성 근로자의 건강문제 또한 이러한 복합적인 입장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먼저, 여성 근로자의 특수한 건강상의 문제는 남성과 비교하여 우선 생리·해부의 구조적인 차이에 있다. 이는 곧 여성 특유의 건강관리를 요구하는 월경, 임신, 출산, 그리고 산전·산후 모성보호 등의 문제점을 낳는다. ~~이에 있어~~ 최근 조사보고에 의하면 여성 근로자 가운데 19.3%가 민혈인 것으로 나타났고 뿐만 아니라 임신중의 과도한 작업이 태아사망률을 높이고 평균 수태율이 비근로여성보다 낮은 것을 생각할 때 여성 근로자의 건강관리는 개인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국가적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되나 실제 여성 근로자의 경우 모성보호 측면에서 정당한 건강관리가 분세시 되고 있으며, 특히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산전·산후휴가, 생리휴가, 육아휴직 제도가 법대로 실시되지 않고 있어 법적 조항이 유명무실한 상태로 이에 대한 규제가 없는 것이 하나의 장애요인이라 할 수 있다.

다른 측면의 건강문제로서 특히 기혼 여성의 경우에는 가사, 육아 등의 육체 및 심리적 이중부담을 갖게되어 건강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으며 반대로 사회활동으로 인하여 가사노동을 소홀히 하기 쉽다는 심리적 부담감을 느끼는 문제로서도 나타나고 있다. 바꾸어 말하면 기혼여성의 취업활동이 조금씩 증가되고 있는 추세이나 아직까지 우리나라가 가부장적 가치관의 잔존으로 인해 기혼여성의 취업이 가사노동과 자녀양육 등의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어려운 입장에 처해 있는 것 이또한 여성 근로자의 건강증진 및 유지에 있어 한 장애요인이라 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건강과 관련된 작업환경에서 산업장 근로자들이 불안함을 많이 나타내고 있으며 이러한 작업환경에 대한 불안요인으로 피로, 소음, 분진, 신체적 장애, 정신적 스트레스, 수면장애로 나타나고 있고 또 작업환경에 따른 작업자세에 있어 서서하는 작업자세에서 요통 및 근육통과 같은 신체적 질환이 유발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장시간의 지속적인 작업이 근로자의 건강상태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사실로 미루어보아 산업장내에 여성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어떠한 보호조치도 마련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 이 자체가 하나의 장애요인이라 할 수 있고 또 이로부터 알 수 있는 또다른 장애요인은 이에 대한 사업주의 인식부족과 함께 이에 대한 국가적 차원에서의 단속이 소홀하다는 점이다.

이에 덧붙여 근로기준법에서 여성 근로자의 야간근무를 원칙상 금하고 있으나 실제 야간근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고, "여자와 18세 미만자의 휴일근무를 금한다"라고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성 근로자의 약 10%가 휴일에도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된 바 있고 또 이로 인해 건강에 있어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법적 보호조항마저도 유명무실한 상태로 이또한 건강장애 요인이라 할 수 있다.

한편 이러한 장애요인으로 말미암아 우리나라 여성 근로자에게서 나타나는 주요건강문제는 장기간의 근로시간과 불규칙한 생활, 열악한 근로조건으로 인한 소화기계, 신경계, 호흡기 질환 및 심한 피로감의 호소

와 신체적 정신적 피로로 인한 불규칙한 월경 및 산업장 사고의 증가, 그리고 저임금 및 낮은 사회적 처우로 인한 열등의식 및 불안감과 같은 정신건강의 유해한 영향 및 성문제로 인한 많은 신체적 정서적 불안정으로 인한 불건강한 생활, 그리고 고용주의 인식부족으로 인한 근로여성의 부적절한 건강관리로 여성 근로자들이 작업환경이 나쁜 곳에서 장시간 작업으로 인한 직업병의 발생으로 요약 할 수 있다.

3. 문제해결방안

이와같은 사실들을 기초로 해서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것은 우리나라 근로 여성의 건강을 위한 국가 및 산업체 고용주의 정책적 배려에 의해서 가능한 것 뿐만 아니라 여성 근로자 자신의 출기찬 노력과 주체적인 활동에 의해서 적극적인 사회적 운동이 전개되어야 하고 또한 이를 위한 사회단체와의 연대를 통해서 열악한 작업환경을 개선해 나가야 하며 이와 더불어 이들의 건강증진을 위해 국가적 차원에서의 보건정책의 장려와 함께 이에 대한 여성 근로자의 의식 및 태도의 변화가 있어야 하고 또 이를 위해 강력히 추진할 수 있는 실현 가능한 해결방안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행동 제안이 여성 근로자들의 진정한 근로권 확보와 근로여성의 사회경제적 지위 향상, 그리고 근로작업 환경의 개선에 따른 여성 근로자의 건강증진을 위해, 더 나아가서는 여성의 인류화 실현을 목표로 다음과 같은 방향에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행동을 위한 제안>

- ▷ 정부는 여성 근로자가 작업하는 산업장내에서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근로조건하에서 작업하는지 안하는지 그리고 이들이 필요로 하는 사항이 무엇이며 근로작업과 이에 따른 건강상의 문제에 있어 심각하게 발생하는 현행 문제점이 무엇인지 알기 위하여 계속적으로 조사연구한다.
- ▷ 정부기관은 교육적 측면에 있어 여성 근로자의 작업환경과 이와 관련된 제반사항 및 건강문제에 대해 강연이나 책자등을 통해 교육하고 이와 더불어 언론 및 대중매체를 이용하여 산업장에서 작업하는 여성 근로자의 현행 문제점들을 다루도록 격려하며, 또 이를 위한 방송 및 라디오 프로그램을 계획한다.
- ▷ 정부는 여성 근로자들의 건강을 담당하는 산업장 내의 보건건강관리 담당자에게 이들의 건강과 관련된 작업환경 현황에 대해 알려주고, 이들을 위한 건강교육을 전담할 수 있도록 격려하며, 또 이와 관련된 제반사업에 동참하도록 권장한다.
- 여성 근로자의 기본근로조건(작업시간, 임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정부기관은 이를 주관하고 운영하는 사업계획에 있어 이를 개선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관련 지도자들의 노력을 장려해야 하며, 또한 여성 근로자의 신체적 특수성에 따른 합리적인 작업환경과 충분한 복지후생시설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에 대한 제반사항을 근본적으로 범국가적 차원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정부관리 및 산업고용주에게 협력을 구한다.

- ▷ 산업장내 담당 보건관리자는 산업장에서 작업하는 여성 근로자들이 직면하고 있는 건강문제와 이와 연관된 작업환경에 대해 교육을 실시한다.

FORMULATION OF STRATEGIES
TO PROMOTE WOMEN'S PARTICIPATION IN POLITICS

Bong-Scuk Sohn, Ph.D.
Director
Center for Korean Women and Politics

1. Why Should Women Participate in Politics?

Human beings are originally created to enjoy freedom and equality. Sexual discrimination didn't exist from the beginning. But as civilization went on, the division of labor between men and women took place. This distinction in gender roles was not nature's intention but for expediency. However, with thousands years of human history, the separate gender role became a tradition and people began to assume a natural system of hierarchy between men and women. The biased beliefs, morals and laws that ensued entrenched a gender relationship verging on the one between master and servant.

Our ideal is to create a world in which everyone is equal. The goal of democracy is to rid society of discrimination and inequality and realize the universal values among the members of the society. A human being can be truly free and responsible when he or she is allowed to fully develop and nurture his/her individuality. The changes and the progress towards democracy, social justice and freedom of humans don't happen by themselves. Required are dedicated leaders who lead society to the need for a change and competent followers who strive toward the ideal. Leaders can't achieve their goals by themselves. They need the support of the people who share their ideals and follow them. True leadership frees people and allows them to be creative. The democratization movement strives to realize these ideals. More than any group in society, women are victims of non-democracy, and thus need strong leadership in their drive for democracy.

For so long in human history women have been ruled by men. What is the reason behind this? Do women lack leadership qualities? What are the constraints that hinder women from advancing their leadership positions? Why should women be able to lead too and why is leadership important to women? What are the requirements to be a leader and what are the best ways to gain leadership positions? These questions are not only for women. Indeed, they are relevant to all the victims of political discrimination, who strive toward democracy.

The Korean women's movement in the past has been focusing on the promotion

and encouragement of women's active participation in "social" activities. It emphasized demanding equal rights in legal positions, attaining equal educational and employment opportunities and so on. A remarkable progress has been made in this respect. Now is the time for us to find effective ways to utilize these newly earned rights and opportunities in order to upgrade the level of women's political representation. In order to do this, it is imperative that more women leaders emerge and take part in politics and society. Women leaders should be included in important decision-making processes such as the ones affecting the most basic and "authoritative" allocation of values.

Women's issues are no longer only for women. They affect to happiness of the whole society, and constitute the core element of democracy and national development. We need to convince the entire society, including particularly our male political leaders, that women's issues are vital elements of political reforms and democratization. To accomplish these goals women have to lift the barriers of their exclusion from leadership roles and positions. As long as women are excluded from the political decision-making process, equality of all regardless of sexual differences can't be realized. These are the goals of our effort to promote women's active participation in politics and the purpose of this workshop.

2. Where Do Women Stand Today?

How many women are in leadership positions and who are they? Leaders can be divided into two categories: those who hold official positions and those who don't. When it comes to leaders, people usually imagine presidents, ministers or congressperson. Their influence over people is, no doubt, great. Although women enjoy equal rights to run for offices as well as equal voting rights as men in most countries, the arena of this institutional politics has been dominated by the male population. A great deal of people still believe that women belong to homes. The prevailing view is still that it is not womenly to have interest in and to actively participate in the political process.

There are influential leaders who don't have high official positions. Some don't even want to pursue those positions, but still play roles equivalent to influential leaders. This type of leaders is called civilian leaders. A lot of women leaders belong to this type. They exercise great influence by either leading women's movements or taking active parts in various social movements.

The reality of Korea is, perhaps same as in most of the other countries, that the public sector exercises greater influence than the private sector when it comes to deciding on the allocation of crucial social values and resources. Yet it is in the public sector that women's leadership is most lacking. More

women have to take part in the public sector so that women can better decide their own destiny by claiming their own share in politics.

Women contribute 40% of Korea's total economic output. Yet the women representatives in the political arena constitute a paltry 1% of the total. While women are encouraged to contribute economically, their participation in politics is frowned upon. The average of women representatives in past legislatures in South Korea has been around a mere 2%. In local legislature, women represent 0.9% of the total. For the high level government positions, there is only TWO women ministers. Among those above the 5th level, women hold only 1.5% of all high government ranks. Among the members of political parties, women consist of 40% of the total membership. Yet, most of the leadership positions are dominated by men.

These simple statistics show that women's place in politics is extremely limited. This also leads one to wonder how much of women's concerns will be heard in congress, in the government, and in political parties. Women simply lack representatives of their own sex. Despite the multiple party system and regular holdings of elections, women's chances to advance in the political system appears to be very slim at this moment.

3. What Are the Obstacles Women Leaders Face?

In any country women consist of a half of the total population. Yet, the number of woman leaders is a lot smaller in proportion. This phenomenon is especially visible in Korea. Why do women, the majority in number in some cases, have to be led by men and what are the obstacles that hinder women from advancing in leadership roles?

One of the biggest reasons why Korean women are prevented from becoming leaders is the patriarchal family system. These family values rule that the man of the family will lead and regulate the rest of the members. Regardless of their age and experience, women are never allowed to have leadership in running families. With industrial development, more women began to participate in the economic activities. But for other social and public activity, women are kept to carry out roles similar to their domestic ones. Even in politics, women's roles are by and large limited to a supporting function or "decorative" roles. The powerful and glamorous roles are dominated by males, and females are often left with roles that are faceless and unappreciated.

Another obstacle Korean women face stems from the structural aspect of male-dominated Korean politics. The election procedures have an appearance of democracy, but in reality they are still replete with authoritarian practices. The powerful positions are monopolized by a few male career politicians. In

Korean politics, many important issues are settled in behind-the-scene negotiations among the bosses. The more important the issue is, the more likely it will be discussed and settled in informal settings by the exclusive few. The chances of women being included in these private informal processes are almost nil.

Political parties in Korea are highly centralized and being run by authoritarian manners. They are organized around a few dominant figures. They take the form of the typical patriarchal mold: the bond between the "boss" and the "underlings" is similar to that of the brothers in the family structure. Women are, of course, shut out from these network relationships. In addition, women candidates face more difficulty than men do in winning nominations of the party. Once they do, they also have a hard time securing campaign funds. These funds are usually supplied from the businessmen who would like to advance their interests through politics. They are reluctant to "invest" in women politicians since they figure that the chances of the woman politician being elected are slim.

The single-member constituency system makes it even harder for Korean woman politicians to win the election. Because many candidates vie for only one seat in the district, the campaign race often becomes overheated. Running a district office costs somewhere between 20-50 million won per month. These funds don't come from the central office. The district party manager has to raise them. In the process of raising funds, many corrupt deals can take place. This, in turn, alienates women further from active politics.

All these factors - patriarchal social order, the structural problems that invite corruption, the disadvantageous election laws and other systematic constraints - keep woman from reaching powerful positions. Additionally, social and cultural elements work against women. Although the constitution guarantees equality for all regardless of gender, the male-dominated, authoritarian political culture discriminates against women. Throughout history, gender difference has assigned men for the public arena, and women for the domestic sphere.

These deep-seated sexual biases are internalized in women through vigorous socialization processes. As a result, women themselves tend to hide away from political involvements, taking politics as "above my concern." Many women still believe that it is "unwomanly" to be a politician. These stereotypical and traditional images are also reinforced by such media as newspapers, magazines and T.V. Such massive social indoctrination to "feminize" women has led women to believe that they don't deserve to rule their own destiny, and even causes them to hesitate to vote for and support women candidates.

4. Twenty-First Century Demands Women Leadership

We are entering to the dawn of the twenty-first century. In the next century, it is predicted that grave changes will take place in our political,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life. The politics of gender, it is said, will gain increasing momentum in the twenty-first century, and this will, in turn, call for more women with leadership potentialities. There are many indications that the necessity and extent of women's participation in politics will greatly increase.

First, in the future society issues affecting the quality of everyday life will increasingly become important political agenda. Political conflicts based on divisive ideology and structural cleavages will become less salient. Instead, the test of leadership and political skills will depend more on the ability to solve problems that affect the quality of the people's everyday life. New regime in South Korea has already taken note of the changing public mood to this direction, and shrewdly pledged for the coming of an era in which "politics will serve to the people's everyday life."

The growth-oriented economic policies in the past have brought Korean society material wealth and prosperity. However, they also have impoverished our living environments. People now perceive that mere subsistence is no longer the most important political issue. Instead, issues that determine the quality of life are beginning to draw public attention. The issues concerning the quality of life - clean air, clean water, waste disposal, social hygiene and welfare - are becoming the primary interests of the public.

The more specialized the society becomes and the more complicated the government's function becomes, the more the functions and roles of politicians need to be specialized and responsive to the demands of the people. And the more issues concerning everyday life become the primary focus of policy agenda, the more women will have a legitimate claim for their due positions in the political leadership. This is because women usually have more specialized knowledge and interests in solving these issues through their real, everyday life experiences. The local autonomy that had been suspended for the last thirty years was restored in 1991 in South Korea. This has widened the political space in which more political women can fill in. Issues of local politics have more direct impact on everyday life. Thus, women will see an increasing chance to improve their own participation in the political process.

Second, the prospect of women's political leadership is optimistic simply because the current state of unbalanced representation can not continue unchanged in the future. The world of politics has been monopolized by men until today. However, it can't possibly go on to leave out those who are not male, not powerful, the poor, the young, and so on. Due to the economic-technological

development and the information revolution, all society become more diverse, complex, and specialized. Accordingly, demands of various social groups to improve political representation and accountability will grow faster and become more intense. Women are least adequately represented in politics. Therefore, it is natural to expect that women, whose causes lie in realizing more just and harmonious social order, will intensify their efforts and struggles to expand the scope of their leadership and representation.

Third, democratization is a worldwide phenomenon, with its effect spreading at the global scale. The wave of democratization is not limited just to Russia, the eastern bloc countries, or Korea. Democratization will soon improve governmental practices and its decision-making process so that the political systems everywhere will become more open and democratic. Male-dominated, authoritarian, under-the-table politics have so far kept women out of politics. Under democracy the type of politics that relies heavily on the informal, private, favor-exchanging, and exclusive networking politics will disappear, eventually widening the scope of women's political participation. When important decisions are openly debated in congress or decided in the cabinet meeting rooms instead of in some obscure private homes or secret spaces, women will have a fairer chance to take part in.

Fourth, the world comes to an end of the cold war era. In Korean Peninsula also, a visible progress is being made in the peace talks. Women's role and contribution will be essential in the process of bringing South and North Korea together toward peaceful relations. Women's leadership is most wanted in achieving the national unification as well. National unification can not be concerns only for men. The government should realize this and try to involve more women in the process. This cannot be done without boosting women's political status.

Women of the future want to become the main partner in power. They would not remain subordinated or ruled by the opposite sex any more. They challenge the world with a new concept of power and leadership. A leader is the one who gives direction to his group or society at large. A political leader is someone who offers new perspectives to the political community and helps leading the people to work toward it. Leadership needs power. Pursuit for leadership in the past was power for its own sake, since politics meant predominantly the pursuit of power. Politics and leadership for power for its own sake made it harder for women to participate in politics.

Given the demands and challenge of the future society, leadership of the future will certainly mean a lot more than just the pursuit of power. When the leaders do lead in future, the people will expect that their leaders would be able to, with the power bestowed on them, diagnose and solve political problems and satisfy both the need of leaders and those who are led. Thus, it is the duty

of we women, who aspire to become the leaders of the future society, to be equipped with special skills and knowledge that are much more than the ones necessary to get power alone. Those who are afraid of changes and those who hesitate to bring about changes can neither become powerful nor the leaders.

What do we need to do in order to create the future as we want? How shall we nurture a new kind of future leadership for women? What is to be done to encourage more women of the future generations to be interested and get involved in political process more actively and effectively? How do we empower the women of today to better prepare for future?

5. What Is To Be Done?

The patterns and practices of current political society that tend to keep women from equal access to politics are many. Some are embedded in our culture, and some in the policy failures. Society isn't yet ready to accept more women in leadership positions, if we sit and wait. Therefore, we should strive for reforms not only in the area of policies but also in the level of consciousness. Traditions and thought patterns don't change overnight. In reforming existing laws and policies, we should seek changes on the cultural level as well.

Measures need to be taken to remove all discriminatory laws and policies. Then we have to promote women leaders. The government and the society should foster and train women leaders. Women's group should join their hands in these efforts as well. Coordinations and cooperations at the international level are also to be promoted.

1) Reform on the Policy Level

What are the ways to bring more women into leadership positions? First, the laws and policies should be reformed so that more women can be recruited in public offices. Election is one of the best and perhaps most natural ways to bring women into the political ranks. The laws and practices, both visible and invisible, discriminating women to run for and succeed in seats for the national and local legislatures need to be changed. The election laws should be amended in the following ways: expansion of the size of the constituency, the public management of the elections, introduction of the clean campaigns and equal opportunity for political funds, etc.

Political parties should provide women with more positions and higher responsibilities. They also need to nurture and aid women politicians more effectively. Until women gain enough strength to compete with men, the parties

should reserve a certain percentage of their candidacy for women by a quota system. Also, more women should be appointed to important government positions. If certain positions clearly indicate that it is more advantageous to have women assigned, these should be reserved for women. Job descriptions for these positions need to be carefully analyzed and widely publicized.

We propose to the government and private enterprises to fill a certain percentage of their jobs with women. Some might argue that this is unfair and discriminating against men, and hence undemocratic. Yet, women haven't had the same kind of opportunities as men for such a long time. The temporary privilege is perhaps the only way to help women overcome the disadvantages they have suffered in the past.

To make the above propositions into a reality, women and their groups can form legitimate pressure groups and demonstrate a show of organized power. Until now, many of the women's groups have been allowed to perform merely social functions. Government policies for women have often been criticized as relying on insincere tokenism, assigning a few symbolic positions to women political leaders. This kind of political practices should be carefully reexamined. As long as women remain passive and satisfied with the minimum offered by the present system, effective reforms can not take place.

At the same time, it is women's (and their leaders') responsibility to prove to the public that women in power can make the world different, new, more creative and democratic. Women's organizations can also help to promote the clean, moral, and the people-oriented images of politics as they contrast to the images made of the power-oriented male politics. Women are, in general, known to respect the democratic process and more opposed than man to authoritarian process. Women prefer to cooperative, harmonious, horizontal human relationships than men do in most cases. More women are engaged in environmental and civic movements than men do in many societies. In general, women politicians tend to be more moralistic, peaceful, and known to be less involved in "dirty business." These scientific findings are worth to be emphasized to prove the virtues of women and their leadership.

2) Educational and Training

Fostering talented women politicians requires appropriate education and plans. To produce real results, education for women demands effective and detailed curriculum development. One important educational focus should be on training for the political candidate. This training should include not only the candidate herself, but also the campaign managers and the entire supporting staff. These people need special training in various areas: preparations for

candidacy, selection of the district, procurement and management of the campaign funds, analysis of the voters and campaign strategy, public address skills and image management, publicity management.

When a woman candidate decides to enter an election, she has to know about effective ways to reach woman voters. We can't let the male politicians sneer and point to the fact that women voters don't vote for women candidates. Another area the woman candidates need training in is how to manage personal attacks and blemishes effectively when rival candidates employ such tactics. The double standard of societal values can hurt women candidates in this case. They should know when to ignore and how to strike back.

Incumbent women politicians need leadership development training. They need education that can help them adjust to and work effectively under the existing political structure. When elected, the politician should know how to evaluate and formulate bills. She also should be familiar with legal jargon and procedures, and how to promote her own bills. A politician has to read voluminous documents. She has to learn how to absorb information effectively in a short period of time, and what to take seriously and what to ignore.

A politician has to maintain an on-going close relationship with the constituency that elected her. She should continue to meet and talk with the people from her district, show what the priority projects of the district are and what she is going to do about them. She should remember to consolidate her support base and continue to expand it. Continuous communication with women's groups and social organizations will help her receive their continuous support.

The woman politician should learn how to utilize the media to her advantage. We live in the media era. It is not much of an exaggeration to say that the success of today's politicians depends on T.V. coverage. Knowing how to portray her favorable images through media and how to get the voters' attention can lead the woman politician to a successful career. We also need to study and monitor carefully on how the media treat women politicians.

We should utilize those women who have retired from public positions as they are often invaluablely resourceful. These women have knowledge and experience to share for others. They can be good resource persons for the education of prospective women politicians. Another thing we should consider is to let those women in senior positions to exchange their experience and knowledge with the prospective leaders. We also need to study those who lost elections and train them to manage their districts more effectively for the next chance.

The women and other civic groups have great potential for training women's leadership. They should actively pursue expanding their activities for women and cultivating skills for effective leadership of the future. Their education programs should include consciousness-raising seminars for the prospective and incumbent leaders as well. Most social organizations, however, lack funds so

that they can't afford to organize leadership education on their own. The government should support them in terms of facilities and money. The women's organizations should take an active role in receiving support from the government and private industries. It should be noted that training of women leaders is necessary not only just for the female population, but also for the betterment of the entire society. It should be taken as an important means for human resource development as well.

3) On Socialization

The socialization process is the main culprit in leading many women to feel inferior and helpless to men in politics. This has to be corrected through social education and activity programs. Changing the values and attitudes require well-conceived theories and comprehensive planning. It also takes a long time to help women to be more active and concerned in social and political issues. Women need to change their traditional views of politics. The curricula for general education of women have to be renewed so that the consciousness level of women on political issues could be upgraded. Traditional values and attitudes can be changed also by having more women involved in various social activities and citizen movements.

There are lots of projects in which women can become involved. Such civic movements as consumer protection, environmental movements, community activities, fair election campaigns, and voluntary works will help women develop social consciousness and hone their leadership skills. The leadership potential for public institutions can be greatly improved when women take advantage of the skills and talents being fostered in civic organizations.

We should also think of ways to help women support and choose woman candidates. If women elect woman candidates, they can help women occupy half of the representative bodies in politics. Voting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political acts. Women should create a voting bloc for themselves. The women's organizations should encourage more women to run and win in elections. They can raise funds for women candidates, campaign for them, and educate voters to participate in elections and vote for women candidates. If we do not act today, the twenty-first century will be another century of non-democracy.

6. Agenda for International Cooperation.

We have learned, from the various reports and presentations during our workshop, that many distinguished women leaders in the East Asian Region are

making extra-ordinary efforts to improve the status of women in their respective countries. We also hear that remarkable progress is on the way in some countries. This workshop is the first and most widely represented gatherings of the distinguished women leaders of the region. We came to realize that fostering women's leadership is common agenda for the whole region. The facts, values, and strategies that have been presented in this workshop are valuable resources for all women in the region worthy of being aware and shared.

Now I propose that we tie our knowleges, efforts and concerns together to form an international networking on women and politics. We should collectively seek ways to improve the social and political status of women through more frequent exchanges and closer communications between women in the region as well as in the world. This workshop is already a small step to institutionalize our efforts in the international dimension. The objective of this workshop is to serve as the cooperative link among countries working to promote women in politics and improve women's social and political status.

By way of concluding my presentation, I would like to take this opportunity and propose to continue East Asian Women's Forum as a regional network in future. The forum can meet in every two or three years of interval and be held in different participating countries of the region. The main activities of the forum would include exchanging various experiences, discussing research results on the common problems, and devising specific plans, strategies and policy recommendations.

* This is a revised and up-to-dated version of the paper which was presented at the Seminar on the "Participation of Women in Politics as an Aspect of Human Resources Development" which was organized by the Center for Korean Women and Politics in cooperation with ESCAP of the United Nations on 18-20th of November, 1992 in Seoul Korea.

한국 여성의 정치발전 전략

(Korean Women's Strategies to Advance into Politics)

김 정 숙 (한국여성정치문화연구소 이사장,
前 정부2차관, 교육학 박사)

I. 한국여성의 정치참여 현황

1. 한국여성의 정치적 지위

한국여성은 1948년 대한민국 정부수립과 더불어 헌법상에 남녀동등한 참정권을 획득하였다. 그후 우리나라 현행헌법은 여성의 참정권과 관련해서 헌법 전문에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게 하며,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안으로는 국민 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제 11조 1항에서는 국민의 평등권을 보장하고 있으며, 제 24조와 제 25조에도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거권과 공무담임권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법 조항들은 여성도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정치 등 모든 영역에서 균등한 생활을 하면서 정치적, 공적생활영역에서의 남녀 평등한 참여를 보장하고 있다.

2. 한국의 여성정치참여 현황

한국여성의 국회진출율을 살펴보면, 제1대 부터 제14대 까지의 여성의원 연인원수는 총 66명(지역구 17명, 전국구 49명)으로 전체 총 의석수 3,250명의 2.0%에 불과하다. 이는 제1대-제14대 국회의원 지역구 선거에서 여성입후보자의 연인원수는 총 126명으로 지역구 전체 입후보자 12,936명의 0.97%에 불과하다. 또한 1992년 실시한 제14대 국회의원선거에서는 19명의 지역구 후보와 16명의 전국구 후보가 나와 제13대 국회의원선거와 마찬가지로 한명의 여성도 당선되지 못했으며, 단지 전국구에 4명의 여성이 진출했다. 그러나 최근 치루어진 보궐선거에서 두명의 여성이 입후보하여

1명의 지역구 여성위원이 진출하여 전체 299명의 국회의원 중 여성위원은 5명으로써 1.7%를 차지하고 있다. 이처럼 한국의 국회에서 여성참여율은 1991년 6월 현재 세계 131개국의 여성위원 비율인 평균 11% 수준은 물론, "유엔여성 10년" 이후 대부분의 국가들이 증가추세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계에서 최하위권에 머물고 있다.

한국여성의 정치참여율이 낮은 것은 지방의회에서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다. 한국의 지방자치제는 1952년에 처음 실시된 이후 3차례의 지방의회를 구성하였으나, 1961년 이래 30년간 중단되었다가 다시 1991년에 실시되어 제4회 지방의회를 구성하였다. 그러나 지방자치의 역사를 놓고 볼때, 제4회 지방의회는 처음 실시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로 볼 수 있다. 제4회 지방자치제는 과거의 권위주의와 중앙집권적 행정체계를 벗어나 앞으로 보다 성숙된 민주화 시대 도래와 남녀공동참여라는 측면에서 큰 의미를 지니고 있다. 그러나 제14회 지방의회의 여성참여율은 겨우 0.9%에 머물고 있는 실정이다. 이를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기초의회에 입후보한 여성입후보자는 123명으로 전체 입후보자 10,120명의 1.2%에 불과하며, 이중 당선된 여성은 40명(1994년 1월 현재 41명)으로 전체 4,304명의 0.9%에 불과하다. 그리고 광역의회선거의 경우 입후보한 여성후보수는 63명으로 전체 2,877명의 입후보자의 2.2%를 차지했으며, 당선된 여성은 8명(1994년 1월 현재 7명)으로 전체 866명의 0.9%에 불과한 실정이다.

3. 공적부분에서의 여성참여 현황

1994년 현재 각료 24명 중 여성장관은 정무장관(제2실), 교육부장관 2명으로 8.3%이며 차관은 정무2차관 1명이다. 신정부 출범당시 여성장관은 정무장관(제2), 환경처, 보사부장관 3명으로 12.5%였음을 감안한다면, 출범초 신정부의 강력한 여성정책의 의지표명으로서 여성정치 참여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여겨졌으나, 현재 그 수의 감소로 오히려 후퇴한 감이 있다.

1993년 여성공무원은 총 87만 1,527명 중 22만 3,171명으로 전체공무원의 25.6%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그 직급 분포를 살펴보면 고위직으로 갈수록 그 비율이 크게 떨어져 일반직의 경우 3급 이상은 1,165명 중 13명(1.1%), 5급 이상은 2만 5천 245명 중 492명 (1.9%)에 불과하며, 대부분의 여성공무원이 8-9급의 하위직에 70.4%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1989년 '공무원 임용시험령'을 개정, 종래의 성별 구분 소집규정을 철폐한 이래 하급직 공무원인 9급행정직, 공안직 공무원 시험에서 여성합격자 비율은 1989년 24.0%,

1990년 30.2%, 1992년 40.1%로 매년 늘고 있으며, 각 지방자치 단체의 공무원시험에서는 평균 60%를 넘어서게 되었다.

그러나 고급공무원을 채용하는 국가고시의 경우 92년도행정고시에 합격한 여성의 비율은 3.2%(9명), 사법고시 여성합격자 비율은 5.6%(16명), 외무고시는 10%(3명)으로 아직도 고급행정직에의 여성참여는 지극히 저조한 실정이다.

정부내 각종 위원회에서 여성참여 비율은 1990년 9.0%로 1984년 2.2%, 1988년 5.5%에 비하여 증가하였음에도 여전히 낮은 상태이며, 2천년까지 여성비율을 15%까지 증가시킬것을 목표로 하고있다.

II. 한국여성의 정치참여 저해요인

한국여성의 정치참여 저해요인은 사회문화적인 요인들과 사회제도적인 문제점 등으로 지적할 수 있다. 이를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정치분야를 남성의 고유영역으로 간주하는 잘못된 한국의 정치문화에서 오는 장애요인을 들 수 있다. 즉, 유교를 중심으로 한 가부장적인 전통은 정치가 남성의 고유영역이라는 사회적 관념으로 인식되어 왔고, 대부분의 여성들 또한 이를 당연히 받아들이고 있는 실정이다. 더구나 한국의 정치문화가 "정치란 부정부패, 당리당락, 권모술수 등의 부정적인 이미지가 강하기 때문에 여성들이 선뜻 후보로 나서기를 꺼리는 실정이다. 또한 가정과 학교교육에서 부터 정치는 남성의 영역이라는 남녀역할에 대한 태도를 각인시켜 왔기 때문에 유권자들이 후보자의 능력에 대해 판단하기 보다는 대부분의 여성유권자조차도 남성후보자를 선호하고 여성후보자에게는 투표하지않는 성향을 보이고 있다.

둘째, 여성의 정치참여 지원에 대한 정당의 지원 부족을 들 수 있다. 현재의 정당정치 하에서 정당의 공천이나 지원이 없다면 선거에서 당선은 불가능하다. 우리나라의 정당 내 고위 여성당직자라고할 수 있는 여성당무위원의 비율은 1994년 현재 민자당의 경우 전체 40명중 2명으로 5.0%를 차지하고 있으며, 민주당의 경우 총 65명 중 3명으로 4.6%를 차지하고 있다. 지구당위원장의 경우 민자당은 총237명 중 2명으로 0.8%, 민주당은 222명 중 1명으로 0.5%에 머물고있는 실정이다. 정당의 여성당원수가 민자당은 3,632,625명 중 2,045,288명으로 전체 56.3%를 차지하고 있으며, 민주당은 935,419명 중 430,293명으로 46.0%를 차지하고 있음을 고려한다면, 여성정치인에 대한 정당의 지원이 지극히 미진함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의 각 정당은 선거 때마다 여성정책의 일환으로 대여성공약을 내걸고, 여성표 모으기에만 급급했지 실제로 여성후보자의 체계적인 양성 및 후보발굴을 위한 노력이 없었다. 물론 최근 국회

내에 여성특별위원회가 설치되고, 각 당에서 전국구 후보의 20%를 여성에게 할당하기로 하였지만, 그 실효성은 아직도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셋째, 여성의 정치참여 지원을 위한 여성정책의 미비를 들 수 있다. 앞서 지적한 바와같이 행정부 내 고위정책결정직에의 여성의 참여비율은 지극히 미진한 실정이다. 물론 여성정책을 다루는 정부기구는 중앙의 정무장관(2실)과 지방의 시·도의 가정복지국 부녀복지과와 시·군·구 내의 가정복지과 부녀복지계를 들 수 있고, 그간 이들 부서에서 산적한 여성문제를 다루고 있지만 여성문제의 해결을 위한 정치참여지원을 위한 업무는 극히 미진한 실정이라 할 수 있다.

넷째, 여성의 정치참여에 대한 여성계의 소극적인 태도를 지적할 수 있다. 여성의 정치참여확대를 위해 본 연구소(한국여성정치문화연구소), 한국유권자연맹, 한국여성정치연구소, 여성단체연합 등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여성단체나 여성운동이 소비자보호나 생활개선사업, 문화운동, 환경운동 등에 치우쳐 있기 때문에 여성정치참여확대를 위한 목소리를 모으기에는 아직 체계적이지도, 적극적이지도 못하다고 할 수 있다. 그렇지만 최근의 할당제 도입을 위한 범 여성계의 연대등, 앞으로 적극적인 여성계의 역할이 기대된다.

III. 한국의 여성정치참여 전략

1. 유권자의 의식개혁

여성들의 정치참여를 확대시키기 위하여 가장 중요한 것은 남녀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을 극복하고, 더이상 정치가 남성만의 영역이 아니며, 남녀가 공동으로 참여하고, 활동해야 하는 영역이라는 것을 사회적으로 인식시켜야 한다. 이러한 사회적 인식을 확산시키기 위하여 일차적으로 여성 스스로의 자각이 필요하며, 학교교육에 있어서도 유치원을 포함한 각급학교에서의 교과과정, 교사의 태도, 등에서의 성차별을 제거하고 양성평등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확산해 나가야 한다. 또한 매스컴이 남녀평등에 대한 인식의 전환에 앞장서도록 하며, 특히 여성지도자상을 부각시키도록 기여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남녀평등이념의 확산을 위해 여성단체 및 시민단체들의 사회교육을 통하여 일반 성인을 대상으로 성차별의식의 제거와 함께 여성의 정치참여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확대시키는데 주력하여야 할 것이다.

2. 여성후보자의 발굴 및 육성·지원

여성의 정치참여확대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여성 스스로가 적극적으로 후보자로 나서야 한다. 즉, 지역 봉사활동 등에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하여 자신의 정치의식을 제고시키고, 이를 통하여 지지기반을 구축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또한 정당은 여성후보자를 육성하기 위하여 여성의 정치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의 개발과 함께 보다 적극적으로 여성인재의 육성을 위한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을 전문적으로 실시하기 위해서 당내 여성정치교육 및 훈련기관의 설치를 통해 여성당원의 교육에 주력하여야 한다. 여성단체에서는 같은 목표를 갖는 단체들 간에 지역적 연대를 통해 여성의 정치참여확대를 위한 공동의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단합하여 여성의 정치력을 형성해 나가야 할 것이다.

3. 정당의 역할

여성의 정치참여확대를 위해 정당에서는 첫째, 현재의 전국구 후보의 20% 여성할당제에서 나아가 지역구공천의 20%를 할당제를 도입해야 한다. 여성정치참여확대를 위한 일정비율할당제는 우리나라 여성계에서 남녀평등을 확보하기 위한 필요한 제도로 인식되고 있다. 둘째, 정당 내 모든 수준의 당조직에 일정비율의 자리를 여성에게 할당하고, 고위 당직이나 자문기관에 여성을 충원하며, 당내 여성정치지도자 육성기구를 설치함으로써 여성지도력강화에 노력하여야 한다. 셋째, 당내 여성정치인 인력은행 제도를 운영함으로써 여성정치인, 여성후보, 여성 선거자원봉사자, 여성 참모의 인력을 파악하고, 필요시 적합한 인재를 추천할 수 있도록 하며, 마지막으로 당내 여성특별기금을 설치함으로써 선거시 여성후보의 조직 및 선거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 여성단체의 역할

여성의 정치참여확대를 위한 여성단체의 역할은 첫째, 여성유권자의 정치의식제고 교육을 위해 여성단체간 연대를 통하여 전국적으로 대규모 여성유권자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특히 시·군 단위의 여성단체는 지역의 유권자 의식교육 사업에 주력하여야 한다. 둘째, 여성후보자 발굴 및 선거지원을 위해 자격있는 여성후보를 모색하며, 그들을 당내 여성정치인 인력은행에 포함되도록 추천하고, 각 시·도 단위별 정치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후보자상담과 자문을 하여야 한다. 셋째, 여성후보자 교육 및 지원을 위하여 전문여성단체나 여성관련 연구소가 집중적으로 지도자교육을 수행하여야 하며, 여성단체의 후보지원 활동 및 교육과정할

등에 대해 매스컴을 통해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여성의 정치세력화를 추구하기 위하여 범여성단체정치연합 등의 여성단체 연대를 적극적으로 추구하여야 한다.

5. 선거전략의 수립

이전의 선거하에서는 소선거구제도로써 선거시 과열현상을 초래할뿐 아니라 과열 타락선거의 가능성이 많았었다. 때문에 현실적으로 정치자금의 취약하고 조직력이 약한 여성후보들에게는 근본적으로 불리한 제도였다. 94년 개정된 '공직선거 및 부정선거방지법'(통합선거법), '정치자금법', '지방자치법' 등은 이전의 선거법에서 보다는 여성후보자에게 상당히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지난 8월 실시된 3개 지역 보궐선거에서 2명의 여성후보가 출마하였으나 야당 여성후보1명만 당선되었다. 더구나 여성 당선자의 당선 배경을 보면 여성의 권익이나 여성발전전략으로 당선되었기 보다는 감옥에 있는 야당의원인 남편의 분신으로 당선되었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새 선거법 하에서 여성진출은 실패하였다고 할 수 있다. 즉, 새로 개정된 선거법이 공정성과 선거자금의 축소 등으로 여성들에게 유리한 측면이 많기 때문에 여성후보자에게 적합하고, 실질적인 전략을 개발하여야 한다.

6. 매스컴의 역할

여성의 정치 참여가 부진한 이유 중의 하나는 '정치는 남성의 영역'이라는 사회적 인식이 공적, 사적교육을 통해 사회화되어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인식의 변화를 수행하기 위해 매스컴의 역할은 중요하다. 여성의 정치참여확대를 위한 매스컴의 역할은 첫째, 매스컴이 '정치는 남녀 모두의 영역'이라는 성역할개념을 유권자에게 심어주어야 한다. 둘째, 여성단체나 시민단체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홍보, 지원하여야 한다. 셋째, 여성후보와 여성언론매체 종사자 간의 연대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IV. 맺음말

현재 한국여성의 정치참여는 국회에서의 1.7%, 지방의회에의 0.9%로 사회 각 다른 부문에의 여성참여율과 비교해 볼 때 지극히 저조한 실정이다. 정치에 있어서의 남녀평등의 구현은 우리사회의 기본적인 이념형인 민주시민 사회의 완성에 가장 중요한 부문이라 할 수 있다.

바꾸어 말하면 여성정치참여가 저조한 사회는 그만큼 민주화의 척도가 낮다는 것을 의미하며, 특히 이는 민주주의를 기본 이념으로한 통일한국을 앞두고 있는 이 시점에서 큰 장애로 등장하게 될 것이다. 때문에 앞으로 여성의 정치참여율은 최소한 30%이상을 확보하여야 한다. 왜냐하면 이는 남녀평등한 민주주의를 확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크리티컬 매스(Critical Mass)가 확보되기 때문이다. 즉 여성의 정치참여율이 30%이상 차지하게 될때, 그 사회는 남녀불평등 사회에서 남녀평등의 사회로 전이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한국여성의 정치참여확대를 위하여 사회 각 부문의 여성들이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여성의 20%공천할당제를 관철시키기 위해 범 여성계의 연대가 결성되었으며, 여성후보자 발굴이나 교육을 위하여 한국여성정치문화연구소를 비롯한 여타 관련 여성연구소 및 여성단체들이 적극적인 활동을 하고 있다.

정치에 있어서 여성의 참여율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여성후보자의 개인의 능력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여성의 의식개혁을 통한 사회참여를 적극적으로 확대시켜야 한다. 즉 활발한 여성의 사회참여와 정치사회화의 확대 없이 여성의 정치참여확대는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여성의 정치참여확대는 올바른 남녀평등이념의 정착 및 유권자들의 여성정치인에 대한 인식 전환과 정당의 20% 공천할당제의 도입과 같은 제도적인 보완, 그리고 범 여성계가 연대하여 여성을 지원, 교육하고, 한 목소리를 낼때 비로소 활발하게 이루어질 것이다.

THE MILITARY SEXUAL SLAVERY ISSUE AND ASIAN PEACE

by Hee Soon Kwon

General Secretary of the Korean Council
for the Women Drafted for the Military Sexual Slavery by Japan

Since the formation of the Korean Council for the Women Drafted for the Military Sexual Slavery by Japan (Hereafter, the Korean Council) on November 16, 1990, the Korean Council has been concentrating its efforts, primarily on resolving this problem by confronting the Japanese and Korean Governments, raising public awareness of this issue withi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nd caring for the former "comfort women." The movement of the Korean Council has been recognized and supported to pursue the goal by international community as well as UN. Therefore, the Korean Council's efforts have achieved progress, but the military sexual slavery issue is still unresolved.

WHERE ARE WE NOW ?

A Remaining Problems

1) Fact-finding

We demand the Japanese Government to research further into this issue. They have thus far released two reports (The first in July, 1992 and the second in August, 1993). The Japanese Government has done nothing further than this. In the report, they reluctantly admitted to their partial involvement. The report never mentioned anything about how many 'comfort women' were mobilized by force, nor related the entirety of the issue of sexual slavery. Also there was no mention or description of the 'comfort stations' themselves, nor of the places to which they were drafted. The Japanese Government has made no effort to release the information materials related to war time. This kind of neglect reflects a sense that the Japanese Government has something to hide, as they have not made any effort to our demand to release the materials closed to the public related to 'comfort women'. This neglecting means avoiding legal responsibility of war crimes.

Therefore, we demand the Japanese Government not only to make a fact-finding committee within the government & Diet but also to support and to encourage non-government fact-finding groups or organizations in order to make clear and as objective of a report as possible.

2) Apology

We are still demanding that the Japanese Government issue an official

apology from the Diet to send to each individual victim. Although they expressed their regret and sorrow about what they did to Korean whenever the Japanese Prime Ministers had diplomatic meetings in Korea, especially with respect to Korean women during the colonization period, they were challenged and denied by the cabinet members: In May 1994, Japan's Justice Minister, Shigeto Nagano, described "comfort women" as "licensed prostitutes" (implying that they volunteered) and stated that the "Rape of Nanking" of 1937, in which 300,000 Chinese were slaughtered in Japan's bloodiest atrocity, never occurred. In August 1994, Japan's Environmental Minister translated Japan's war-time aggression as an act of liberation for Asian countries. These statements give proof that the Japanese Government still believes Japan did no wrong during the Pacific War. How can we attain justice for these "comfort women" when such denial of Japan's war-time violations occur? Therefore, we demand an official apology resolution of the Japanese Diet.

3) Reparation

The Japanese Government should immediately pay economic reparations to the victims of military sexual slavery. Former "comfort women" are getting old and weak. Six women have already passed away since the Korean Council was formed. Thus the Japanese Government should pay reparation to each individual as quickly as possible. Before their lives end, they should be granted some peace, for once in their lives, if not emotionally, then at least financially. When the Japanese Government plans a charity fund or "sympathy money" by non-governmental fund raising, we assume that they have misinterpreted our protest as demonstrating purely for money. The reason why we should demand reparation is that it is the only clear and visible means for apology and atonement, and to bring justice, according to the report of Prof. Theo van Boven, the UN Special Rapporteur on the right to restitution, compensation and rehabilitation for the victims of gross violations of human rights and fundamental freedoms (E/CN.4/Sub.2/1993/8).

As The Korean Council, neighboring Asian Countries, and international communities have been criticizing the Japanese Government, they have finally responded with plan to create an 'Peace Exchange Fund' to promote the study of Japan's wartime activities, youth exchanges between Japan and other Asian countries, and the establishment of a women's self-support

center to provide vocational training for Asian women or 'Sympathy Fund' to create fund for "comfort women" in lieu of the requested reparations. If the Japan 'Peace Exchange Fund' is used to propagate Japanese culture, then it can not be used as a means of atonement for Japanese war crimes. It also does not indicate that Japan has recognized its guilt. They are avoiding the real issue. If the non-governmental fund raising is done by Japanese people themselves, it produces a result to give an indulgence to the Japanese

Government. It makes even confusing the location of legal responsibility. If the Japanese Government really wants to uphold its legal responsibility to the victims and to apologize for their violations against human rights, there is no reason to avoid paying the individual reparations and creating a 'Peace Exchange Fund' or a 'Sympathy Fund' in its stead which has nothing to do with their redress for their crimes.

Recently ICJ(International Commission of Jurists) even recommends that pending action of taking steps to fully rehabilitate the victims, the Japanese Government should pay, as a purely interim measure, without prejudice to its rights and contentions, the sum of US \$40,000 for the rehabilitation of each woman who has come forward.

However, the Japanese Government has insisted that the reparation for all damages during the colonial period was taken care of by the Korea-Japan Treaty in 1965. It is not enough to state that legal responsibility of reparation for the victims was finalized by the Korea-Japan Treaty, since this treaty did not include the specific problem of comfort women, moreover, the Japanese government did not even recognize the fact of military sexual slavery itself at that time and the treaty treated only the claim rights between the two states; it did not cover the individual one.

Therefore, the Korean Council has decided to take the case of the military sexual slavery to PCA(Permanent Court of Arbitration) to clarify whether or not the Japanese Government has any legal obligations to pay individual reparations under international law.

4) Punishment

The Korean Council demands that the Japanese Government should punish the guilty parties who were involved in carrying out the system of the military sexual slavery by Japan. In order to prevent this kind of gross violation in the future, punishment measures are necessary. We feel that if the punishment is carried out, it can only aid Japan's morality and conscience.

The most recurring problem has been Japan's inability to admit fully its past crimes. They have given the excuse that their aggression was carried out for the purpose of liberating all Asian countries under the slogan "the Greater East Asia Co-prosperity Sphere". The Japanese Government has built shrines and memorials to pay honor to those who sacrificed their lives for Japan. Furthermore, in order to commemorate 50 years since the end of the war, they are planning to build a war memorial museum called "The War Dead Peace Memorial Hall" to show the war experience from a Japanese perspective, excluding victims from other Asian countries who were coerced to sacrifice in the name of Japan. This kind of one-sided representation of the past can only lead to more confusion about Japan's guilt and responsibility of war crimes for future generations.

The Korean Council demands that in order to bring justice the Japanese Government should sign to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of Non-Applicability of Statutory Limitation for War Crime and Violation of Human Rights'. The victims are still suffering from the effect of the war. Yet, the guilty are left unpunished. When can the 'comfort women' attain their due justice?

B. Tasks

1) Campaigns for the Permanent Court of Arbitration (PCA)

The Korean Council has finally decided to take the case to the PCA to have a fair judgement for both parties according to international law by which all sovereignties abide. Now we are preparing campaigns for the PCA trial at home and abroad to put pressure on the Japanese Government to take this case to this court. If they have nothing to hide, and if they have no responsibility, they should have no objections to this decision.

2) Signature Campaign opposing Japan's becoming a Permanent Member of the UN Security Council

The Korean Council will sponsor a signature campaign internationally. We strongly believe that the Japanese Government is not eligible to discuss world peace as a political leader of the world until they make a redress for their past violations of human rights in Asian countries according to international law.

3) At the time of the Fourth UN World Conference on Women in Beijing. We believe that the women's conference in Beijing is a great opportunity to explore the issue of military sexual slavery and to demand a resolution to bring this issue to a conclusion. At the East Asian Women's Forum in October, 1994, the issue will be the topic of focus in one of the workshops entitled "Woman and War/Peace" to make a plan of action and strategies before the conference. The Korean Council will lobby and campaign the UN member states not to allow Japan to become a permanent member of the UN Security Council. The Korean Council calls upon all women in the world to join us in our efforts to protest against Japan's becoming a Permanent Member of the UN Security Council as well. Therefore, the Korean Council is planning to have NGOs solidarity forums with other Asian countries and lobby in order for the "comfort women" issue to be adopted as a formal UN document in the UN world conference on women in Beijing.

4) At the UN Commission on the Status of Women in March, 1995, in New York, the Korean Council will lobby to be adopted the draft resolution of military sexual slavery in the conference.

5) White Paper on the military sexual slavery by Japan

A Committee of Survey and Investigation of the Korean Council is preparing to publish a "White Paper" on the military sexual slavery by Japan. The Committee realized that it might be difficult to attain the records from the Japanese Government. Thus, this committee decided to assemble the records and testimonies of the former "comfort women" themselves and to make a "White Paper". This book will be published at the end of this year. The historians and.. of the academic fields and the active participants of the movement are mobilizing to produce this book.

6) Opening of "Women & War Historical Museum"

In Commemoration of the 50th anniversary of the Liberation of Korea, we are planning to open the "Women & War Historical Museum" to show to the public the historical materials, documents, books, and pictures related to the 'comfort women' issue which we have collected thus far. It will be used for public education and to spread the knowledge dealing with the issue of military sexual slavery.

7) Exploring of the issue of "comfort women" in China abandoned by the Japanese Army after WW II. The Korean Council and member of RACW recently found nine former 'comfort women' in April, 1994, in Wochan, China. They are a typical case of comfort women deserted by the Japanese soldiers. They were placed there where the headquarter for the Japanese Army existed in China. They were forced to be sexual slaves for the Japanese soldiers, and at the time of the ceasefire, they were abandoned. The Korean Council is planning to invite them to visit their homeland since they left home 50 years ago to draw attention from all over the world, and to explore the issue.

CONCLUSION : IN PROSPECT OF ASIAN PEACE

The Korean Council's efforts have gained progress in resolving the military sexual slavery issue. There have been fact-finding missions, demands and demonstrations for reparations, apologies, punishment of criminals, a revision of Japan's history textbooks and a construction of a monument for the deceased victims. Gradually, bits of the truth are being revealed and disclosed for the world to see. Without justice, true reconciliation between nations is not possible. Even today, many still hold a strong bitterness towards Japan for her past wrong-doings. In June, 1994, Japanese Emperor Akihito was greeted with huge demonstrations during his visit to the United States from Asian Americans. Every Wednesday, Japan is reminded of its past with the demonstration in front of their embassy in Korea. These demonstrations are reinforced with support from not only Korean people but also from students all around the world, especially

the United States. Japan must come to face the fact that this pressing issue will not disappear; it will not be forgotten; the former 'comfort women' will not allow it; the Korean people will not allow it; most importantly, students will not allow this issue to go unresolved. They will carry through to unveil the truth and to bring justice to these women long after these 'comfort women' have passed away. It is evident that the Japanese Government is feeling pressure and even a great embarrassment for not having yet admitted to its gross human rights violations.

In order to realize peace and justice, the Japanese must admit its responsibility during the Pacific War, grant reparations to those who suffered in the past, punish the criminals, and give a full, sincere apology. By doing this, Japan will finally be able to begin establishing a peaceful and friendly relationship with peoples and nations in Asia as well as the world.

Recently, Japan has expressed its desire to become a permanent member of the UN Security Council. The Korean Council is lobbying against this wish. Before Japan can become a political leader in the international arena, it must bring a conclusion to its unresolved past. To reach this conclusion, Japan must fully admit its guilt of the military sexual slavery against Asian women. Japan must realize that she cannot enjoy the fruits of her economic success, without fully coming to terms with the wrongful acts of the past. Thus, the Korean Council asks the UN member states not to allow Japan to become a permanent member.

Unlike the postwar German Government which made efforts to disassociate itself from Nazi policies, Japan seems to have been more dedicated to justify or to cover up the past. Not only has Japan avoided facing up to its responsibilities, but they have gone so far as to enshrine temples to these war criminals. Again, this kind of action indicates the kind of mentality Japan still has in consideration of her past. In order to change this mentality, and wake morality & conscience of the Japanese Government, the Korean Council calls upon all Asian women to join us in our efforts to protest against Japan's becoming a permanent member of the UN Security Council. This kind of demand by Japan is unjustified and incomprehensible in our eyes because Japan has not made any sincere effort to make a redress for her past violations of human rights against Asian countries.

The Korean 'comfort women' case is promoting a new claim for human rights, and in particular, women's rights, in Asia. However, Japanese admission of legal responsibility is the only possible means to produce the soil where human rights can grow in Asia.

"These days, I suffer more since I began to tell my testimony. It started up my heart. I suffer even today from nightmares. But I will tell my story again and again because Japanese cruelty must not be forgotten. They cannot invade us

and do this again to my grandchildren in the future."(Kim Soon Duk, a former 'comfort woman', shared when I visited Sharing House in May, 1994)

When the former 'comfort women' finally broke out of their silence to tell their stories 50 years after the fact, people were shocked and outraged. When former 'comfort women' finally began to share their stories with great courage, these stories not only come out of their great pain, but also to warn the world that it could happen again and that it must never happen again. When former 'comfort women' share their stories again and again, it breaks their hearts. Still, they will do, if it means that next generation of women in the world need not have to be broken in the future, and if it means peace for Asia and the world.

Who did destroy the hope of these women?

Who did ruin their dreams?

Who did steal their souls?

The Japanese Government, with their systematic institution of military sexual slavery, is to blame. They destroyed these women's hopes, their dreams, their souls, and their youths. So only with the recognitions of their guilt, shame, and responsibility of their atrocious crime can the former 'comfort women' attain peace and justice. With a sincere apology and compensation, these women can at last begin to try to retrieve their dignity, their pride and their self-respect.

Unfortunately, we do not have much time to listen to their stories, as they are getting old, and as many are withering away. Therefore, we must act quickly to receive their due reparations. We must act to keep these women's life stories alive. We must act to create solidarity among women not only in Asia, but also around world, to prevent this kind of systematic sexual violence from occurring again in the future. It is our responsibility and our duty as human beings to remember. We must keep these "dangerous memories" alive.

Presentation on behalf of
the Subcommittee on Religion, Korean NGOs
September 1994

Sexism and Religion

Han Jihyun
Chair, Won Buddhism Women's Association

Throughout history, a new religion, regardless of its kind, is found to aim at the outset for the abolition of injustice and the liberation of humanity. Lamentably, however, we find that with the passage of time in almost every case the religion itself settles into yet another system of oppression, supporting those oppressive systems in existence. In Korea, too, the established religions, coupled with the patriarchal tradition of Confucian culture, have discharged a role of sustaining, rather than eliminating,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In Korea the major religions are Confucianism, Buddhism, Christianity (Catholic and Protestant), and such indigenous religions as Won Buddhism, Chōndo-kyo (Religion of Heaven's Way), and Chūngsan-kyo (Religion of Chūngsan).

There is some argument as to whether Confucianism is a religion at all. At any rate, Confucian teachings came to Korea by the third century at the latest, and with the founding of Yi Dynasty (1392) became a kind of state religion. Since the middle of that Dynasty (around the sixteenth century) Confucianism has taken root as the pervading ideology of Korean culture. While the extent of sexism in the original Confucian teachings remains debatable, it is undeniable that Confucianism has provided the chief ideological support of patriarchy in Korean society both in the traditional and modern periods.

Buddhism first came to Korea in the fourth century during the Three Kingdoms period, and since then its influence on our traditional culture has been so large as to make it impossible to think of the latter apart from Buddhism. Its doctrine emphasizes equality, but from the very beginning its monastic regulations were highly discriminatory against women. It must be pointed out, too, that in the course of adapting itself to the Confucianist Yi Dynasty the patriarchal elements in Buddhism became even more deeply entrenched.

Catholicism, which came to Korea in the latter half of the eighteenth century, had at first an emancipatory function, particularly for women and for the *chung'in* class, with its teaching of the equality of human soul before God. But at the same time there were strong sexist elements in the dogma itself, with male monopoly of priesthood presupposed, so that it was also well suited in many ways to a role reinforcing the patriarchy of Confucian society. These elements combined with the Church's efforts for adaptation after the period of persecution to turn it into an institution contributing to the preservation of sexism in Korea.

Protestantism came to Korea much later than Catholicism, toward the end of the nineteenth century, but its membership increased very rapidly. Especially to those young women who felt deprived of the opportunity for education and participation in public life for reasons of gender, Protestantism with its female foreign missionaries and its establishment of the first institution of higher education for women appeared as the way of liberation for their sex. In other words, to a considerable extent it was the possibility of women's emancipation rather than the doctrine as such that enabled the Protestant churches to achieve such rapid success in their missionary work. But as the missionaries mostly adhered to a fundamentalist theology oriented toward dualism and imperialism, the Protestant churches soon came to lose its emancipatory force by an easy compromise with the status quo and alliance with Confucian patriarchy.

The indigenous religions of Korea, Chōndo-kyo, Chūngsan-kyo and Won Buddhism, founded during the last days of the Yi Dynasty or the early years of Japanese Colonial Rule, raised the slogan of *huchon kaebyok* or a radical transformation to open a new 'later era', and advocated the general abolition of social inequalities including oppression of women. In fact, these new religions not only challenged class distinctions between the gentry (*yangban*) and the commons, and between the 'legitimate' and 'illegitimate born' (the latter meaning children by concubines but of legally recognized lineage), but carried out specifically feminist reforms such as allowing remarriage of widows and forbidding concubinage. Among them Won Buddhism has provided a largely exemplary solution to the problems faced by previous religious establishments, both by its progressive doctrine (see Appendix) and through actual institutional measures accomplishing considerable sexual equality. But the newer religions, too, have a tendency to be more and more coopted by a sexist society, rather than transforming it, as they concentrate on multiplying the number of believers and thus often prefer to avoid friction with existing social norms in their proselytizing work.

The chief problems of the major Korean religions today may be summarized as follows. (Confucianism is not included in this list because it lacks the organizational structure of a religious order and also, as mentioned above, it has become an element of everyday life as the universal ideology of traditional Korean culture.)

Catholicism: Foremost issues are male monopoly of priesthood and exclusion of women in policy decisions of the Church. Moreover, with the interpretation that a priest of Christ needs to become physically one with Him and thus cannot be female and that the original all-male disciples of Jesus indicate a decision by Christ to exclude female clergy in principle rather than a particular response to given historical circumstances, the barrier remains at the level of dogma as well as of policy.

Protestantism: Except for a limited number of denominations, female ministry (ordination) is not allowed, and in numerous cases women are excluded from policy-making process.

Buddhism: Buddhist doctrine postulates that both monks and nuns, equally as secular followers, are pursuers of Buddha's Way rather than a priesthood with special powers. But in practice, nuns are heavily discriminated against in terms of both disciplinary rules and power within the hierarchy.

Won Buddhism: Among the new indigenous religions Won Buddhism probably was most successful in institutionalizing its doctrine of sexual equality, so that female clergy predominates in number and even members of the Supreme Council, the highest policy-making body of Won Buddhism, are equally divided between the sexes. But the advancement of male clergy to administrative positions is favored and sometimes even taken for granted, so that there is a danger of reinforcing the patriarchal structure of the outside world and of restricting the improvement of female clergy's qualifications and experience.

These problems occur essentially because religion, instead of becoming an active agent in working for fundamental changes in the given society, tends to assume the role of helping preserve the status quo, in its eagerness to multiply the number of its followers by accommodating itself to the ways of the world. Also, religions usually teach the need for self-abnegation and sacrifice for a life in accordance with God's will or Buddha's law. But this could also lead to the misconception that the most human of desires, the aspiration for human liberation, is an individual's illegitimate desire, and to attempts at silencing it. As a result we often find religionists much less active than nonbelievers in the efforts for true human liberation.

In the case of Korea, such general problems are compounded, and the sufferings of both men and women further aggravated, by the additional shackle of national division. The ruling forces of South Korea which, thanks to the division, have managed to preserve their privileges since long before the Liberation of 1945, have a thoroughly sexist outlook. While under their continued dominance Koreans of both sexes have suffered from dictatorships and from encroachments by foreign powers, women have endured the additional burdens traditionally assigned to the female sex, such as restrictions on public activity, unequal rights and pay in labor, and discriminatory treatments within the family. On the North Korean side, women's participation in public life is reported to have been institutionalized to a considerable extent, but functions such as domestic work carried out by women in traditional patriarchal societies are still mostly assigned to them. Also, while the ideology of the regime, which emphasizes family-like cohesion and universal obedience to a supreme male leader, may be understandable in the context of national division and military confrontation, the patriarchal aspect of such an ideology can hardly be overlooked.

If the ultimate aim of religion is human liberation including the abolition of unjust discriminations, and the humanity to be liberated includes women, overcoming sexism must be an active agenda for all religions. And if religion seeks to save not humanity in the abstract but living men and women, Koreans of whatever creed must actively pursue the goal of reunification, if only to improve the lot of women suffering from national division. In order for religion to fulfil its essential task, it must remain ever open and awake, alert to the danger of its becoming rigid and conservative, and must recover its prophetic role of accomplishing human liberation in the concrete tasks of reality.

We the members of the Subcommittee on Religion, cognizant of above facts, resolve upon the following as guidelines for action.

- 1) Since all religions share human liberation as their true aim, we refuse any action that erects barriers between religions.
- 2) Agreeing that human liberation is impossible without the abolition of patriarchal social institutions, we join in the efforts for such abolition and refuse any collusion with unjust state powers.
- 3) Knowing that women are the subjects in the task of bringing about a free and egalitarian society, we endeavor to place trust in and promote the growth of women's capabilities.
- 4) Wherever oppression of women is found, including the banning of female ministry, we refuse to recognize it as an instance of true religion,

and regardless of different religious beliefs, shall unite to take measures to bring an end to such oppression and discrimination.

5) Women, as producers of life for all humanity, shall endeavor to create a new communal life of giving and sharing, as a mother gives and shares life with her child.

6) Recognizing the special sufferings of women from national division, we shall take an active part in the task of democratization of society and reunification of the nation.